
권두 인터뷰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특집

2024년 격동하는 국제정세, 우리의 통일외교 방향은?

만나고 싶었습니다

임미정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 이사장

민주화해

126 vol
2024.1+2



민족화해

민족화해 2024년 1+2월호(격월간, 통권 126호) 등록번호 마포, 마00101 발행일 2023년 12월 21일 발행인 손명원
편집인 원희복 편집기획위원 김용현 이승현 이예정 임상범 전영선 조남훈 최지영 발행기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68, 한국YMCA전국연맹빌딩 3층 전화 02-761-1213 홈페이지 www.kcrc.or.kr
디자인 및 제작 (주)지원프린스 02-2272-5562

본지에 수록된 글들은 민화협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126 vol
2024.1+2



Cover Story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아왔다.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위기, 식량자원 등 전지구적
문제들이 한반도를 직격하고 있다. 새해에는 남과 북이 민족
화합과 세계시민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발걸음을 다시 떼어야
할 때다.

(표지: 2018년 10월, 민화협 회원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다녀온 백두산 전지)

Contents

02

편집인 칼럼 | 원희복

민족문제... 재통일과 재창간

04

포토에세이 | 조천현

접경지역에서 바라보는 북한

06

권두 인터뷰 | 편집부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12

신년기획 | 편집부

민화협 회원단체 신년 메시지

18

특집 – 2024년 격동하는 국제정세,
우리의 통일·외교 방향은?

1. 북한 내부의 긍정적 변화 유도하는
‘한반도 선언’ 필요해 | 조한범
2. 한일관계 1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 조진구
3.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 남성욱

28

만나고 싶었습니다 | 김태우

임미정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 이사장

32

우리의 역사 | 박 도

민궁호 의병장 전적비를 찾아가다

34

이슈 앤 포커스 | 김아영

대한민국,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4

청년칼럼

- ① “이게 된다고?” | 전이슬
- ② 지역 언론사 기자의 역할 | 이은호

40

민족화해 네트워크

- ① 문화와 예술로 한반도 평화 담론을 쌓다 | 편집부
- ② 북한 여성의 의식변화와 한반도 통일을 논하다
| 이요름
- ③ 북한연구 신진 연구자 네트워킹 간담회 | 김선규
- ④ 글로벌 시대의 민족화합과 남북관계 | 편집부

48

새로운 시선 ⑫ | 노현우, 김아영

이주체계이론으로 본 북한 이주민의 서구 국가 이주 요인:
영국과 캐나다 사례 분석

52

문화 모니터

영화 속 북한 이야기 ③⑩ | 전영선

문학 속 통일미래 ④① | 오태호

우표로 보는 남과 북 ⑤② | 이상현

62

평화를 만나는 기행 ⑪ | 이영동

철원 평화기행을 마치며

66

회원단체 소식

70

궁금한 책

72

민화협 사서함

민족문제… 재통일과 재창간

원희복 <민족화해> 편집인·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는다. 용의 해다. 카메라 기자들은 하늘로 비상하는 용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바쁘다. 용 두 마리가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오르는 장면은 모든 사람에게 올 한 해 희망찬 시작을 공감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 누구나 새해에는 꿈꾸는 소망을 말한다.

우리 <민족화해>가 꿈꾸는 소망은 제호 그대로 민족화해이다. 민족화해를 통해 이루려는 궁극적 목적은 물론 민족통일이다. 요즘 통일보다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워낙 요즘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평화를 강조하다 보니 벌어지는 현상이다. 1960~70년대 베트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상황이 엄중할 때, 우선 한반도 평화를 제대화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 유엔 동시가입이다. 요즘 남북은 유엔에 동시가입된 별도의 국가이니, 각자의 길을 가자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통일정책의 역사성을 모르고 하는 소치다. 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화라는 수단을 도입한 것을 본질로 착각하는 것이다.

이런 바탕에는 민족의 개념에 대한 오해, 즉 민족은 근래 들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상상의 공동체라는 잘못된 주장도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서양사를 보면 솔하게 많은 부족과 민족의 갈등이 이어졌

고, 로마제국 흥망도 역시 민족의 흥망이다. 동양사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변방 민족의 존재와 특징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우리 조선왕조실록을 보더라도 북방 이민족 정책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프랑스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는 “민족은 본질적으로 역사의 산물로 분쟁 중에 있는 다른 이데올로기의 가치체계와 대립한다”고 주장한다. 비단 민족문제는 과거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내부 인종문제의 근본을 따지고 보면 바로 민족문제다. 지금 이 순간,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종교전쟁으로 보이지만 더 들어가면 민족 갈등이, 더 깊게 들어가면 씨족분쟁, 더 근원을 따지면 혈족 즉 이복형제 모순이 응축되다 폭발한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갈등의 시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민족 간 분쟁이다.

인류사가 말해 주듯이 한정된 자원을 쟁취해 살아남기 위한 연합체 단위가 바로 민족이었던 것이다. 결국 민족은 근래 만들어진 ‘상상의 공동체’가 결코 아닌 인류사를 꿰뚫어 온 ‘생존의 공동체’인 것이다.

분단국가인 처지에서 현재 우리가 감내하는 문제점을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 분단으로 인해 벌

어지는 체제 경쟁 등에 동원되는 엄청난 물질적 낭비와 정신적 비효율은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개인의 병역문제에서 엄청나게 들어가는 군비 문제, 사상의 자유 문제, 소위 안보 리스크라 불리는 경제의 문제 등등.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 치러야 하는 엄청난 비용을 75년간 지불해야 했다.

결국 민족문제는 낡은 이념체계가 아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문제인 것이다. 이런 민족문제를 안은 채, 전후 잿더미에서 이만큼 성장을 이뤄낸 것이 기적이다. 만약 이 분단비용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훨씬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민족이 통일된 나라에서 살자는 것은 지금이 현실적이고, 또 유리한 것이다. 사실 민족문제는 보수의 중요 의제다. 가족과 전통을 수호하는 것이 보수의 기본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 맥락보다 현대사 왜곡에 의해 보수 의제와 진보 의제가 뒤틀려 버렸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분단은 인도적으로도 잔인한 고통이다. 잠시 피해 있겠다고 떠난 아버지, 남편, 동생과의 생이별이 이리 오래 지속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제 이산가족 1세는 대부분 혈육의 한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굳이 같이 살아야 하느냐는 철모르는 주장도 있

지만, 지구상 가족이 생이별하고 이리 사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려는 것은 통일의 용어에 대한 재정립이다. 통일이 아닌 ‘재통일’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다시 ‘재(再)’자를 넣음으로써 원래 하나였던 통일국가였다는 의미를 재확인해야 한다. 고 김준희 교수(전국대)는 분단국가일반이론에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분단국가란 “원래 하나의 영토와 헌법체계(총괄국가)가 정치적 이유(2차 대전 등)로 국제법상 동등한 부분국가로 잠정적으로 구분돼있는 국가”라고 규정한다. 이런 분단국가의 통일은 원래로 돌아가는 의미에서 ‘재통일’(re-unification)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본다. 신라가 부족 국가 차원의 3한을 통일한 것은 통일이다. 분열된 세력을 하나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국가 차원의 남북 분단시대에 통일은 재통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보다 ‘재통일’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 이는 원래로 돌아간다는 희망과 당위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화협과 <민족화해>도 시련과 도전의 2024년을 맞는다. 모두 다시 시작한다는 ‘재창간’의 각오로 심기일전해야 한다. 🌈

37

접경지역에서 바라보는 북한

조천현 PD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눈썹달이 지고나면

눈썹만 한 달마저 지고 나면
강을 건너오겠다고 했다
여스레히 보이는 것보다
어두운 밤이 좋다고 했다

몰래 강을 건너려면
세상이 어두워야 한다
별이 지고 나무와 풀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때
눈썹달마저 희미하게 빛을 잃을 때
사막사막 눈 밟는 소리조차 나지 않게
그림자처럼 강을 건너야 한다

어슴푸레 보이는 눈길을
어떻게 오르는 걸까
나는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내면 깊숙이 들려오는
발소리를 기다린다

조천현은 조 중국경을 다니는 PD로 KBS 일요스페셜 <현지르포, 두만강변 사람들>, SBS 스페셜 <5년의 기록, 압록강 이천라 사람들> 등을 연출했다.



김 덕 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되기를

남북관계의 많은 부침 속에 민화협 25년의 역사가 함께 하고 있다. 때로는 환희의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좌절과 아픔의 시간도 있었다.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민화협을 이끌던 2009년~2013년은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반목과 갈등으로 어려웠던 시기였다. 하지만 김덕룡 이사장은 특유의 열정과 신념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위기의 순간을 새로운 기회로 계기로 삼으려 노력했다. 그를 만나 지금의 어려운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을 물었다. 그는 쉽게 포기하지 말 것, 그리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끊임없이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인터뷰는 지난 2023년 12월 19일 서초구 방배동 김덕룡 이사장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대담 이시종 민화협 사무처장 정리 편집부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Q | 이사장님이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맡으셨던 2009년~2013년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남북관계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재임 기간 중 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돌아보면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터지고, 급격히 악화된 남북관계는 이후 우리 정부의 5·24조치,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으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민화협은 민간 차원의 남북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칫 상대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이 땅에 더 큰 비극을 가져오는 일은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민화협은 남북 사회문화교류와 더불어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제가 대표상임의장으로 취임한 후 2009년 6월 북한 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한국YWCA연합회가 마련한 분유 3,500통을 지원했고, 2010년 7월부터는 긴급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회원단체들과 함께 모금운동을 통해 쌀, 분유, 밀가루 등을 이듬해까지 지원했습니다. 지원 물품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도 수해지원 물품을 마련해 경의선 육로를 통해 지원했습니다. 남북관계, 특히 인도적 지원은 여야와 이념, 종교의 차이를 떠나 말 그대로 순수한 인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합니다. 민화협 자체가 정치, 이념, 종교를 모두 아우르는 통일운동협의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덕룡 이사장 뒤로 김영삼 대통령이 1980년대 정치규제로 두 번째 가택연금 중 쓴 회호 족자가 보인다. 미주한상총연합회 박상익 고문이 오랜 시간 소장했다 2023년 10월 김 이사장에게 기증했다. 장자의 말로 “마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죽고 만다”는 뜻이다.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는 사업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민화협이 중심이 되어 2007년 창립한 겨레의 숲이 양묘장 현대화 사업, 시범조림 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2010년 5·24조치로 중단되었지만, 당시 북한 담당자들이 우리의 노력에 감사해하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남북은 한반도에 함께 살고 있는 환경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결국 우리에게도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면 다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2009년 8월 김대중 대통령 서거 후 북한의 김기남 비서, 김양건 통전부장 등 조문단이

왔을 때 이명박 대통령을 설득해 청와대 접견을 성사시켜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Q | 750만 해외동포사회의 통일기반을 확대하고, 평화통일 민간 공공외교를 위해 해외협의회를 창립하고 이를 확대하셨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에서 처음으로 해외협의회 10여 개를 창립하고 매년 해외협의회 주요 임원들을 초청해 ‘민화협 해외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09년 LA협의회 2기 출범, 중국협의회 준비위 결성, 대양주협의회 결성 등의 활동을 펼쳤고, 2010년에는 중국 북경에서 중국협의회, 심천에서 화남협의회, 상해에서 화동협의회 등을 창립했습니다. 같은 해 미국 워싱턴협의회도 창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미국 동남부협의회, 시카고협의회, 범뉴욕협의회, 샌프란시스코협의회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같은 해 11월 해외협의회들이 힘을 모아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 어린이들을 위한 밀가루 100톤을 개성 육로를 통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당국 간 대화는 물론 민간차원의 교류 역시 어려운 순간, 전세계의 우리 동포들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해외동포 750만 중 80%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평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들의 각 나라에서 민간 공공외교를 펼쳐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화해, 통일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동포들이 함께 해주었고,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에 너와 나는 없어

Q | 민화협은 그동안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남북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른바 보수 정당에서 일생 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처음 민화협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도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의 자격으로라도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당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15공동선언을 발표했을 때도 당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컸지만, 저는 제 개인의 의지로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제의가 왔을 때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참여 의지를 강하게 밝혔고, 이를 이 대통령이 흔쾌히 동의해 맡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 결국 통일을 이루는 민족적 과제 앞에 그 어떠한 차이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부분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면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라면 그 누구도 평화를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남북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갈등과 대립이 존재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과제 앞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 길에 민화협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Q | 현재 남북관계 경색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입니다.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한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현 모습이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2018년 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5·1경기장에서 문 대통령이 연설했는데, 경기장을 가득 채운 북한 주민들의 뜨거운 환호를 잇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한 부분에서 모든 주민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도 비핵화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노력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생각이 순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북한 스스로 자신이 핵을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것이 결코 스스로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핵이 없어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비핵화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됩니다.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끊임없이 북한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



2010년 9월 민화협은 회원단체들과 힘을 모아 북한 수해 지원을 위한 밀가루 130톤을 육로를 통해 지원했다.

야 합니다. 지금 비록 남북관계가 꼭 막혀 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 역시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느끼는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와 비교할 순 없습니다.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차분하게 지속적으로 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 찾아가는 한 해 되기를

Q | 민화협을 비롯한 민간통일운동 진영 역시 남북관계의 장기간 경색 국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지내면서 또한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돌아보면서 저는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민화협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화협의 힘은 정당과 종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회단체들로부터 나옵니다. 남북문제로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의 지혜와 뜻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170여 회원단체

와 함께 국민의 삶과 연관된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합니다. 민간차원의 통일운동과 남북교류협력이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실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절된 상황 속에서도 그 이후를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유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밤이 깊었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내 다시 일어서시곤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절실히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단군이 나라를 세웠을 때 제시한 이념이 홍익인간입니다. 그것은 우리만 잘살고 남을 지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더 많은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더 위대한 민족,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창의력과 문화적 역동성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

서 ‘K-’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음식과 패션, 게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문화 예술적 역량이 꽃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강국으로 우뚝 선 우리입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우리를 옥죄어왔던 분단의 굴레까지 벗어던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Q |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새해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우리 조국이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하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우리 정치와 남북관계의 통합을 위한 화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개개인부터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나부터, 나 하나부터 먼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정치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지금 정치권을 보면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화해와 협력, 포용과 관용보다는 적대와 대립, 반목과 공격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당장 해답이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대응이 없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거나, 지레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 작은 것에서부터



2023년 12월 14일 김영삼민주센터가 주최하여 열린 문민정부 30주년 기념 세미나.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오랜 분단의 세월만큼,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근차근 다시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제가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맡았던 시기의 어려움이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닌 이상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희망을 찾아 키워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25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민화협 직원들과 역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대의 앞에 함께 해온 회원단체들에게 감사함과 애뜻함을 느낍니다. 비록 어렵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위한 길을 개척해나간다는 사명감을 잊지 말고 굳건히 나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화협 회원단체 신년 메시지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 다시 평화로, 다시 화해로!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2023년 세계는 전쟁과 무력 충돌로 혼돈의 시기를 보냈다. 우리 정부는 동맹국과의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 실상 알리기 등 대북 압박을 강화했고, 결국 남북 당국 간 일체의 대화조차 없는 한해를 보냈다. 2024년 대한민국의 상황 역시 녹록지만은 않다. 각종 경제지표는 불황을 예측하고, 기후위기는 우리 삶을 직격하며 인구문제는 민족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민화협 회원단체들이 2024년 더 밝은 대한민국과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교육으로 하나되는 그날까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국제적으로는 미중 패권 전쟁 심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격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등으로 전 세계가 어수선했으며 국내적으로는 '문지마' 범죄 사건 및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 등 각종 사건 사고로 다사다난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 미사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으로 인한 9·19 남북군사합의 중지 상황까지 이어져 그간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욱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교육계는 큰 아픔과 시련이 연이어 발생한 한해였습니다. 학부母的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 사건과 교권 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에 날이 증가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폭력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사들이 강렬한 피약별을 감내하며 거리로 나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절박하게 호소한 한해였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또한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참거나 혼자 감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전국의 교사들과 함께 거리로 나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새해 한국교총은 교사들의 억눌렸던 울분과 고통의 감정이 녹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동토(凍土)가 되어버린 우리 교육을 양지(陽地)로 변화시키기 위해 더욱 진력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차갑게 얼어버린 남북관계 또한 동토에서 양지가 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로서 힘쓰고자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와 인권과 법치에 기반한 민주평화통일을 위해 역대 최초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한 것처럼 더 이상 터부시하고 묵인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불합리한 부분과 변화가 불가피한 부분을 개선해야 발전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방향에 맞춰 현장 교원들과 함께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통일과 남북교류에 대해 생소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남과 북이 더 이상 다른 나라가 아닌 한민족으로 하나 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꿈꿀 수 있도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상호협력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을 넘어 남북 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남북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대 교원단체로서 협력하고 힘쓸 것입니다.

올해 갑진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은 동방을

수호하는 신성한 용이기에 2024년 올해 동방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도 시성 타고르가 동방의 등불로 지칭한 대한민국에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으로 기대하며 차가워진 남북관계에도 훈풍이 풀 것을 기원합니다. 더불어 모두에게 따뜻하고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의로운 평화를 향해 더 많은 여성들과 손을 맞잡겠습니다.



구정혜
한국YWCA연합회 상임이사

전 세계 평화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한해의 첫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여전히 들려오는 전쟁의 참혹함이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 절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에서의 긴장 심화와 한·미·일과 북·러·중의 양극화된 군사동맹 체계 강화로 한반도 군사 긴장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무력 갈등 속에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는 이들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입니다.

한국YWCA는 지난해 진행된 제30회 YWCA 세계대회에서 '동아시아 안보와 정의로운 평화를 위



한 연대 구축'을 주제로 결의문을 제안했고, 전 세계 YWCA 회원국들의 지지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YWCA는 세계 80여 개 YWCA 회원국들과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평화 정착을 위해, 지역 여성과 소녀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안전을 지지하는 동아시아 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안보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평화 문화를 확산하고, 평화통일 영역에서 여성 참여와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내 50개 지역의 YWCA 회원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평화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각 지역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여성들, 그리고 국내외에서 애쓰는 이들과 연대를 확장해가며, 한반도의 평화가 전 세계 평화의 물꼬가 될 수 있도록 일하겠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길에서 늘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의 새해 과제

1989년 4월 1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창립하였습니다. 진실·질서·화합을 기본 이념으로 국민 정신운동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경제성장과 1987년 민주헌법 개정으로 경제적·정치적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은 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 속에 주목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선진국이 되려면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국민 의식의 선진화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과제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소명

에 부응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 바르게살기운동이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중앙협의회를 위시하여 17개 광역 시·도 협의회, 233개 시·군·구 협의회, 3,210개 읍·면·동 위원회와 100

만 회원이 활동하는 국민운동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향후 해외조직도 결성하여 교민사회의 통합에도 힘을 보탬 계획입니다. 그동안 민화협이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을 추구해 왔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이 힘을 보탠다면 해외 교민사회에도 진실·질서·화합의 정신과 평화통일의 가치를 넓게 펼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국가적·사회적 과제는 정부나 법·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동서갈등, 계층갈등, 환경오염, 범질서의 확립 등 많은 사회적 과제들은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동참이 있을 때 효과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적 빈곤의 시대에는 풍족히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고 선진국의 반열에 든 만큼 세계인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명실상부한 문명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K-팝을 위시해 음식, 문화, 패션 등 한류가 전 세계인을 매료시



김순택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사무총장

키는 이때, 대한민국의 훌륭한 정신과 가치관도 따라 배우고 싶은 한류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세계는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늘 일촉즉발의 위기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민화협이 화해의 깃발을 들고 평화를 추구하듯이 바르게살기운동도 함께하며 국민의 선진의식으로 평화와 질서와 화합의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또렷한 발자취를 남기는 2024년이 되기를 바라며 민화협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가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한해가 되기를

정전 70주년,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합니다. 남과 북이 전쟁을 잠시 멈춘지 7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또 한해를 넘겼습니다. 남북 관계는 강대강으로 더 얼어붙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대북 적대감과 북한에 대한 무관심은 증가하고 화해와 교류협력의 동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꿈꾸는 '정의롭고 건강한 한반도 평화공동체'를 향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서로돕기운동을 통한 인도주의 실현과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새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속가능한 민간

남북교류협력력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민간 남북교류협력력이 지속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평화 문화 확산을 위한 평화교육, 시민 참여 프로

그램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남북협력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대북협력 재개를 위해 다양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끊임없이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남북 간 직접 교류가 힘들다면 재외동포를 통하거나 국제 NGO와 협력하는 방식도 찾아야 합니다.

재외동포사회와의 연대와 협력도 중요합니다. 재외동포는 한반도평화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를 향한 우리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 조선족동포, 재일동포, 미주동포,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의 고려인 동포들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새해 2024년은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1

2024년 격동하는 국제정세, 우리의 통일 · 외교 방향은?

북한 내부의 긍정적 변화 유도하는 ‘한반도 선언’ 필요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3년 11월 15일 문을 연 서울 종로구 북한인권미술관에서 열린 개관 기념 전시 '낮선 말, 표현의 그림자'에서 방문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전쟁은 예상을 깨고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세로 전환한 우크라이나가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며, 전쟁 장기화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에 부정적이며, 유럽 각국의 상황 역시 대동소이하다.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은 우크라이나전쟁은 물론 글로벌 안보정세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우려했던 두 개의 전쟁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 각국의 안보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이라는 점에서 분쟁 당사자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전쟁은 지리한 소모전 또는 휴전의 양자택일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제거해도 팔레스타인 문제는 해소되기 어렵다. 2024년에도 두 개의 전쟁은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 전반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한 부담은 미국과 중국이 최근 휴전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몇 가지 합의를 도출했다. 미중은 군 고위급 소통 재개에 합의했으며,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온 줌비 마약 펜타닐 단속을 약속했다. 양측은 인공지능(AI), 이스라엘-하마스전쟁, 우크라이나전쟁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과 통일을 언급한 반면, 미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및 2024년 1월 대만 선거 절차 존중을 요청했다. 트럼프 정부 시기부터 격화되어온 미중

전략경쟁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 미중정상회담은 양측 사정에 따른 일시적인 제한 휴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견제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았으며, 시진핑 주석의 신형대국관계전략도 변한 게 없기 때문이다. 두 개의 전쟁과 경제문제로 2024년 11월 대선 전망이 불투명한 바이든 대통령과 경기부양이 최우선 과제인 시진핑 주석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잠정적 휴전 합의의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2024년에도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뉴노멀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언제든 양측 간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강압과 신냉전전략 지속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장기전을 선포하고 대내적 차원에서는 자력갱생과 핵능력과도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 대외적으로는 신냉전전략을 추구해왔다.

최근 북한은 핵강압전략을 심화시키고 있다. 2022년 9월 핵무력의 법제화에 이어 전술핵운용 부대를 실전 배치한 이후 대남 핵공격훈련을 공개리에 실시해오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핵탄두 탑재 가능 단거리 미사일 KN23, KN24, KN25는 물론 전략순항미사일과 핵어뢰를 선보였으며, 전술핵공격잠수함까지 진수시켰다. 2023년 9월에는 핵보유를 헌법화해 비핵화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2023년 11월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진입시킨 직후 김정은 위원장은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수중에 넣었다며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예고했다. 최선희 외무상은 2023년 9월 담화에서 비

핵화는 위험이라고 강조했으며, 11월 김여정 부부장은 자주권은 협상의제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향후에도 북한의 핵강압전략은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한 한반도 긴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북한은 신냉전전략을 통해 국제사회의 압박을 우회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중북관계와 러북관계이다. 핵능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남, 대미협상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이 차질을 빚자 북한이 다시 전통적인 관계로 회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핵심적인 국가는 중국이며, 대외교역의 90% 이상이 중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과 북한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은 북중수교 75주년이라는 점에서 양국관계 발전 심화의 계기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러시아는 탄약을 포함한 북한의 군수보급 능력에 주목했으며, 이는 최근 급속히 밀착하고 있는 러북관계의 원인이다.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은 2023년 7월 북한을 방문했으며, 9월에는 러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북한산 탄약공급이 본격화되었으며, 컨테이너 수천 개 분량의 군수물자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진다. 우크라이나전쟁의 조기 종료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향후 러북관계 강화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2024년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도 있다.

한국과 미국의 국내정세 변화

북한은 한미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를 명백히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4년에도 중국

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신냉전전략을 지속할 것이며, 이에 기반을 둔 대남, 대미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은 한반도정세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여야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기존의 남북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남북관계 정상화,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 원칙적 대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남북관계 발전을 지향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우선하고 있다. 여야는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북정책에도 차이가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내세워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역대 최강의 한미동맹관계와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우리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공화당 대선주자들 대부분 민주주의 네트워크와 동맹 강화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미국 보수 성향 전직 관료와 학자들은 차기 미국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를 통해 동맹국들이 재래식 방어에서 더 큰 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18~2019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상이하며, 북한 핵문제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북한은 한국을 대상으로 핵공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 자체 핵무장 여론이

보수 진보 구분 없이 70% 내외를 넘나드는 현실이다. 북한 문제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가중된 상태다. 따라서 국내정치 역학구도의 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2024년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명백히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로부터의(top-down) 협상 방식의 재연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한미의 국내정세가 변화해도 어느 경우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나 상황의 급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한민국을 향한 북핵위협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으며, 북한은 윤석열 정부와는 남북관계에서 ‘헤어질 결심’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보인 것은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북한이 갑이 되는 일방적 관계, 그리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로 다가온 북핵위협에 대한 확고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 안보의 비대칭적 위협인 동시에 역내 안보의 구조적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어느 경우든 용인될 수 없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되 당면한 북한 핵위협 상쇄에 주력해야 한다. 워싱턴선언의 이행을 구체화하고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우리의 자주적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우리 안보구조를 직시하되 글로벌 안보정세와 미국 대선의 영향

등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경제력에 부합하지 않는 다량·다종의 핵무기와 정찰위성 확보까지 모색하고 있다. 핵무기의 유지·보수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며,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경제위기가 반비례하는 이유이다. 북한이 핵보유에 집착할수록 김정은 정권과 북한체제의 미래가 불확실해진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이 당면한 고통의 원인이 무모한 핵개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 북한 내부에서도 비핵화의 동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다.

이미 체제경쟁이 끝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인내와 자신감에 기반을 둔 대북·통일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북한 주민의 고통 경감에 대한 역할이 우리 정부에게도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무한책임론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한반도선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북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선언’은 북한 당국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도덕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며, 북한 주민에게 우리의 진실성을 전달하는 방안이다. 북한 내 긍정적 변화는 한반도의 자유, 평화,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자유화와 민주화를 견인하기 위한 중장기적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조한범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2

2024년 격동하는 국제정세, 우리의 통일 · 외교 방향은?

한일관계 1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2023년 11월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3년 11월 16일, 2023년 들어서만 7번째 회담을 했다. 다음날인 11월 17일 한일 정상 초청 좌담회가 스탠퍼드대학에서 열렸는데, 제3국에서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과 윤 대통령은 맛있는 음식과 술을 아주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올해 초까지 일한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으나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로 ‘결단’하면서 “일한 관계를 크게 변화”시켰다고 강조했다.

12년 만의 한일 셔틀 외교 복원과 절반의 물잔

한일 양국 정상은 지난 1년 사이 외국 정상 가운데 가장 많이 만나 신뢰를 쌓아왔다. 이것은 한일 간 최대 외교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피해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일본 정부가 평가하면서 실현된 것이다. 3월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절반밖에 없는 물컵이 채워질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기시다 총리를 비롯하여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 조치가 양국 관계를 “진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1998년 10월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3월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양자 회

담을 위해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으며, 5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저 자신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많은 분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한국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1일 기시다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한국 대통령이, 그리고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것은 처음이다. 8월 6일 히로시마평화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했지만,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찾은 사람은 없었다. 중단되었던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는 복원되었지만,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은 없었고 절반의 물잔은 점차 마르기 시작했다.

안보정책의 대전환과 새로운 일본

2022년 12월 16일 일본은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한 ‘전략 3 문서’를 각의에서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헌법과 국제법 및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비핵 3원칙과 전수방위 등을 견지하겠다고 했지만, 방위력의 발본적인 강화와 방위력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 등의 면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의 대전환이라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2023년부터 5년 동안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늘려 약 43조 엔을 확보해 “대체로 10년 후까지 보다 조기에 원거리에서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침공을 저지·배제할 수 있도록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일본에 대한 침공을 억제하는 데서 가장 중시했던 것이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을 활용한 반격능력의 보유다. 지금까지 미일동맹에서 미국이 창(공격), 일본이 방패(방어) 역할을 한다고 역할 분담을 해왔는데,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는 일본이 창의 역할도 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지 혹은 억제 실패 시 일본에 대한 추가적인 무력공격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오히려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여 일본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군비경쟁을 촉발할 우려조차 있다. 또한, ‘국가방위전략’은 지역의 특성과 각국의 사정을 고려하면서 동지국(like-minded countries)과의 다각적, 다층적 방위협력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어떤 국가가 동지국인가 하는 점이다. 조약상 방위 의무가 있는 일본의 동맹국은 미국뿐이며, 영국과 호주, 최근에는 필리핀에 대해 일본 언론이 ‘준동맹국’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엄격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2023년 6월 6일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어떤 국가가 동지국에 해당하는지는 각각의 외교과제에서 일본과 목적을 같이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일괄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명언을 회피했다. 동지국과의 안보협력에 관해 일본은 구체적으로 공동훈련, 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원화협정(RAA), 방위장비품의 공동개발과 이전, 능력구축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일본이 한국을 인식하고 어떠한 범주의 안보협력을 상정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2023년 8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세 정상은

모두 한·미·일의 새로운 협력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강조했다. 동맹이 아닌 한국과 일본이 양국 공통의 동맹인 미국과 함께 “안전하고 번영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만들기 위해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기로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했다.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의 한일관계

특히, 안보와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캠프데이비드 정신’)에서는 남중국해서 불법적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는 중국의 ‘위협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직접 언급하면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경제심을 표출했다. 또한, 3국 간 ‘협약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에서 세 정상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서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여기서 언급한 신속한 협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앞으로 세 나라가 달성해야 할 전략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공유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다.

2023년 11월 12일 캠프데이비드 이후 처음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는 북한 미사일 정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메커니즘의 연내 정상 가동이 재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 실시하는 ‘다년간’의 3국 공동훈련계획을 연내에 확정해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3자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11월 13일 열린 제55차 SCM에서 승인된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위협으로부터의 방위와 지역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본과의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처음으로 포함되었으며, SCM 공동성명 제14항에서도 ‘다년간’의 한·미·일 3자 훈련계획의 연내 수립 완료가 합의되었다.

2023년 연말까지 확정될 한·미·일 3자 훈련의 목적이나 대상, 지리적 범위 등에 따라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협력 양상을 띠 수도 있다. 한일 양국은 불완전했던 정보보호협정을 완전히 정상화하고 한반도 주변 해상과 공중에서 공동훈련을 하고 있지만, 2018년 12월 동해안에서 저공으로 비행하는 일본 초계기에 한국 해군 함정이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는 논란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여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대북 억제력의 강화로 인식한다면 한국이 미일동맹에 편승 혹은 편입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남북관계의 장기간 표류도 불가피하다.

2024년 한일관계 전망

일본은 1998년 북한이 대포동을 발사한 후 정보수집위성의 도입을 결정하고 2003년부터 운용을 시작했는데, 2023년 11월과 12월 북한에 이어 한국도 정찰위성을 보유하게 되었다. 남북 간의 군사합의가 형해화(形骸化)하면서 무력 충돌의 위험조차 커지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북중(러)를 자극하고 단결하게 하면 우리의 외교적 운신의 폭은 좁아질 것이다. 다년간의 한·미·일 3자 훈련이 북한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 것이며, “국제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불가결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훈련도 상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일 양국

을 둘러싼 안보 상황이 극적으로 변모하면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상대방의 영역 내에서 훈련하거나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좌절한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2023년 6월 공개된 통일연구원의 보고서(『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응답자의 52.4%와 55.5%가 한일 군사동맹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보협력과 군사동맹은 본질적으로 다르며, 한일의 ‘공동의 안보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2024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이 어떻게 종결될 것인지에 더해 1월과 3월의 대만 총통선거와 러시아 대통령선거, 미국의 대통령선거 등 주변국의 국내정치적 요인이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한일관계에 국한해 본다면 윤석열-기시다 콤비가 연출한 밀월의 한일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시다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데다 자민당을 둘러싼 불법비자금 문제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일본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서 대일 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

조진구는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법학박사(국제정치 전공)를 받았으며, 현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3

2024년 격동하는 국제정세, 우리의 통일 · 외교 방향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2023년 4월 27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외교전략은 △자유 · 평화 ·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자유 · 평화 · 번영의 인도 · 태평양 전략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상 명시된 통일의 원칙하에서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8월 19일 캠프 데이비드 한 · 미 · 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강조했다. 앞서 4월 28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유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중략) 이제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 비전의 필요성

한반도의 자유통일 비전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과 보편가치의 실현이다. 자유는 헌법상 통일의 원칙이자 인류 보편가치에 해당한다. 헌법 4조는 통일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장에 있음을 선언했다. 보편가치인 ‘자유’를 증진하는 통일이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는데도 필요하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은 “회원국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한다고 규정했다.

다음은 통일인식 제고와 통일담론의 활성화 때문이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통일에 대한 열기는 과거보다 약해졌다. 바람직한 통일 미래상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

한 관심을 촉발하고, 통일담론의 활성화에 필수적이다. 통일 국가의 핵심 가치가 ‘남북한 주민, 특히 북한 주민의 자유·인권의 회복과 향유’에 있음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북 메시지에 자유통일 비전이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과 보다 나은 삶의 희망을 주고, 북한의 ‘두 개의 한국론(Two-Koreas)’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통일의 주체로서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평화로운 발전과 번영을 이루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과제

자유민주주의 통일 실현을 위해서는 3대 과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북한 비핵화 및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증진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 등을 통해 ‘북핵’이라는 평화에 대한 위협과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튼튼한 안보,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실효적 해결, ▲원칙 있고 실용적인 남북관계 추구,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기반 준비 등을 통해 비핵화 평화번영을 한반도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담대한 구상’(audacious Initiative)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사 때부터 밝힌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 및 세부화하여 비핵화 조치에 상

응해 단계적으로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협력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담대한 구상의 추진목표는 일관성 있는 원칙하에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확보하며 긴밀하고 철저한 한미공조하에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 추진방식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우리의 상응조치를 망라한 과감하고 균형적인 포괄적 합의 도출을 모색한다. 북한의 합의 불이행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단계적 이행을 추진한다.

담대한 구상의 실천방안은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및 경제발전’ 등의 3대 분야에서 5대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5대 핵심 사업은 ①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 지원, ②주요 항만과 공항 현대화 사업, ③대규모 식량 공급과 농업기술 지원, ④병원 및 주요 의료 인프라 현대화, ⑤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등이다.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북한은 자력인지 외부의 도움인지는 몰라도 세번 만에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한 달간 잠행을 이어 가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비서는 러시아 기술자로 추정된 미지의 서양인과 ‘DPRK NATA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입은 실무진에 둘러싸여 환호성을 질렀다.

자유 통일 실현과 긴장의 한반도 정세

북한 매체는 과거와 달리 흰머리가 노출된 그의 사진을 내보냈다. 마치 그간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총력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인민들에게 과시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동북아 정치·군사안보에 복잡미묘한 합의가 있다.

북한이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이어 중화기를 반입하는 등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에 들어

갔다. 남측을 겨냥한 해안포도 개방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2018년 합의 당시 비무장지대 남측 초소는 60여 개, 북측 초소는 160여 개인 상황에서 1대1 동수 비율의 GP 철수는 사실상 불평등 합의였다. 남북이 각각 11개씩 철수한 것은 묻지마 졸속 합의였다. 북한 GP는 지하땅굴로 연결되어 있어 지상에 돌출된 특정 초소를 철거해도 대남 정찰 및 감시에 큰 지장이 없다. 하지만 우리 초소는 절대 숫자도 적고 감시 영역도 넓어 11개의 초소 철수로 비무장지대 중 6분 1의 감시 공백이 생긴다. 9·19군사합의 24개 세부 사항 중 남북이 완료한 9개 항목을 보면, 북한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거나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행했다.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는 비대칭적인 합의였던 9·19군사합의는 북한군의 GP 복원으로 사문화되었다. 우리 군도 GP 복원 등 상응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근무하는 북한 군들이 권총으로 무장하는 등 비무장화를 파기한 만큼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 유엔군사령부의 동의를 얻어 동등한 화기를 반입해야 한다. 적시에 대처하지 않으면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방치하는 격이다. 안보를 지키는데 철저한 맞대응(tit-for-tat)은 유사시에 희생을 줄이는 최선의 방책이다. 장병들의 굳건한 대비태세 확립이 필요한 엄혹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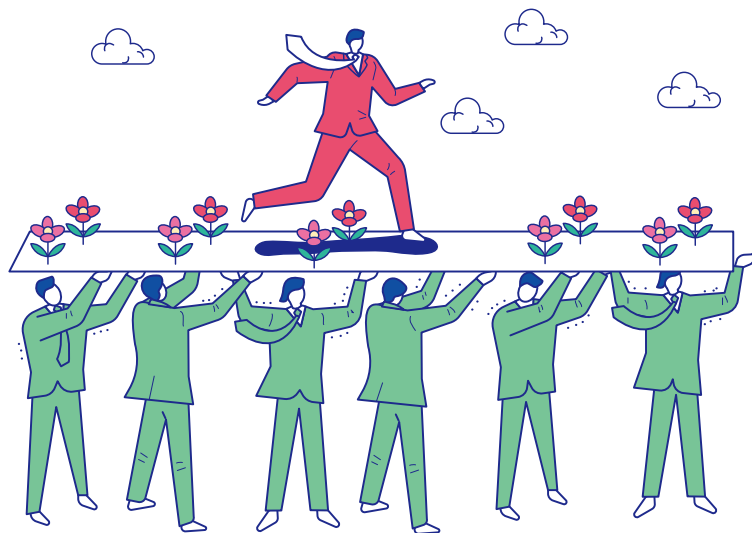
6개 항목으로 구성된 9·19군사합의는 애초부터 출발이 잘못되었다. 평양 140km, 서울 40km 거리인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의 수도의 거리 차이는 우리 안보에 구조적인 함정이다. 북방한계선(NLL) 서해 끝단을 기준으로 북으로 50km, 남으로 85km 등 거리가 다른 점도 고려되지 않아 군사합의 당시 정부가 NLL 기준선을 포기한 것은 아닌

지 의문이다. 우리 군 최전방부대의 방어태세에 치명적인 약점이며 북한군의 수도권 기습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파리평화회담처럼 상대는 변하지 않는 데 평화 구호에 매몰되어 우리만 불리한 군비 통제를 감행한 것이다.

2024년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예측 불가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 2년이 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전쟁 피로감이 가중될 것이다. 2023년 10월 시작된 하마스와의 이스라엘의 충돌 역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으로서는 추가적인 전선이 형성되면서 역설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약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역시 국제정치에 영향을 주는 큰 변수로 부각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를 통해 몸값을 최대한 높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빅딜을 겨냥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영변 핵시설의 시운전 정황을 탐지했다. 김정은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강력한 신무기 배치를 공언했다.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새로운 차원으로 변모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2024년은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靑龍)의 해다. 북한의 도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비상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결기를 다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

남성욱은 미주리주립대학교에서 응용박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차관급)을 역임했고 현재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 겸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음악을 매개로 한 내면의 평화를, 남과 북 그리고 세계평화로

대담 및 정리 김태우 민화협 정책홍보팀 부장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임미정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
이사장

2023년 가을, 한반도 평화를 향한 선율이 경기도 접경지역에 넘실댔다. 11월 4일부터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DMZ OPEN 국제음악제가 7일 간의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면서, 5월부터 시작된 DMZ OPEN 페스티벌도 막을 내렸다. 그 중심엔 이번 국제음악제 예술감독을 맡았던 임미정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 이사장'이 있다. 2000년대 초반 남북문화교류에 앞장서며, 이후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을 설립해 음악을 통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를 연결짓고 분쟁을 넘어 인류애를 실천해오고 있다. 2023년 12월 8일 서울 가회동에 위치한 재단 사무국을 찾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의 여정을 들어보았다.

Q 2023년 11월에 열린 'DMZ OPEN 국제음악제'에 대한 소회가 궁금하다.

A “남북분단을 넘어 세계분쟁을 치유하고픈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믿을 수 없는 세계사적 사건이 벌어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렇다. 국지적 충돌을 넘어 국가 간 전쟁이 과연 오늘날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충격이었다. 클래식계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행동이 있었다. 2022년 4월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에서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콩쿠르를 퇴출시킨 것이다.

이번 음악제도 전쟁을 반대하는 연대의 뜻을 함께하고 싶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세계적 피아니스트인 호로비츠를 기리는 호로비츠 국제피아노 콩쿠르에서 올해 1등한 로만 페데리코가 개막공연 협연에 함께 했다. 또 2022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우승을 한 반 클라이번 국제콩쿠르 입상자도 초청했는데, 2등인 안나 게뉴시네는 러시아 출신이고 3등인 드미트리 초니는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이 둘의 공연은 청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특히 이념과 평화 그리고 클래식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여타 음악제와 차별을 둔 것으로 자크 마르퀴즈 반클라이번 콩쿠르 CEO, 플

로리안 리임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 사무총장, 니콜라스 데논크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사무총장 등 클래식 세계무대의 주요 책임자들이 모여 '비평화 시대 음악의 특별한 역할'을 주제로 세계평화를 위해 음악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할지 머리를 맞댔다.”

DMZ 공간적 특성을 살렸던 '탄약고 음악회'

Q 'DMZ OPEN 국제음악제'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은?

A “‘DMZ’라는 공간적 특성을 잘 살려내고 싶었다. 행정구역상 경기도 내 접경지역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이고, 준접경지역은 고양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가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100만 도시인 고양시를 두고 준접경지역이라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우리가 고양아람누리 공연장을 선택한 것도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이 있는 ‘DMZ’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체감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한 결과다.

무엇보다 '탄약고 음악회'가 기억에 남는다. 'DMZ'의 주요 장소를 알아보던 중 과거 미군이 주둔했던 캠프 그리브스를 찾게 되었다. 탄약고에 관객이 자리를 채우고 악기 선율이 흐르며, 중앙에

놓인 김명범 작가의 설치미술 작품 <원(ONE)>과 어우러지면서 그 공간과 관객, 연주자 그리고 미술 작품까지 서로가 연결이 되면서 독특한 감동을 줬다. ‘DMZ’라는 공간이 주는 특별함을 음악과 함께 관객들과 공감하고 싶었다.”

Q 2005년에 설립한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A “나의 정체성은 ‘피아니스트’다. 어려서부터 음악을 매개로 의식의 경계 너머 무의식의 지점까지, 자기 내면을 깊이 고찰하는 삶에 집중해왔다. 어느 순간 음악이 인간 내면의 인류가 고귀하게 지녀온 평화와 사랑을 매개할 뿐만 아니라, 그 고귀한 가치를 인간과 인간 나아가 우리 사회에 공유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하게 됐다. 그 추상적인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먼저 음악, 커뮤니케이션, 세계시민교육 등이 어우러진 ‘하모니네이션’이라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작했다. 사업이 점차 확장되면서 2023년에는 ‘상상인’ 그룹과 함께 세계 최초 휠체어 오케스트라를 출범했다.

코이카(KOICA)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미얀마, 탄자니아, 콜롬비아 등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을 찾았다. 놀랍게도 개발도상국의 많은 친구들이 클래식을 포함한 음악에 갈증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간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유럽과 미국 등 서구를 중심으로 마켓이 형성되어 왔는데, 개발도상국에서도 이에 못지않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니즈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처럼 재단은 음악을

통해 개개인의 삶의 가치를 탐구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회 사이의 연결지점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남북 문화교류의 음악인이자 기록자

Q 2000년 북한 평양에서 열린 국제친선음악제에 초청되었고, 북한 작곡가 윤충남의 피아노협주곡을 뉴욕의 에이버리 피셔홀(현 데이비드 게펜홀)에서 초연하기도 했다. 또 2005년에는 평양에서 독주회를 열었다. 어떠한 계기로 북한과 문화예술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나?

A “1980년대 후반 미국 유학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선배들의 소개로 ‘남북 가곡의 밤’ 연주회에서 반주자로 참여했다. 1989년 월북 작곡가의 작품들이 해금되면서, 김순남 등의 작품들을 연주했다. 연주회에는 미국에 거주하던 실향민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공연을 마치고 고맙다며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나 역시 감동을 받았다. 그 계기로 1990년대 초까지 미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남북 가곡 연주회를 이어갔다.

1999년 우리 정부가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면서, 2000년 북한으로부터 국제친선음악제 초청을 받았다. 미국에서의 ‘남북 가곡의 밤’ 행사가 인연이 된 것이다. 당시엔 미국 시민권자여서 비교적 자유롭게 북한을 방문할 수 있었다. 물론 주변에서 많이 걱정했고 가족들의 반대도 컸다. 첫 방문 때는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다녀왔다. 하지만 두 번째 초청을 받았을 때는 국제친선음악제가 북한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고민이 컸다. 그럼에도 첫 방문

에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춰가던 기억, 그 연주를 집중하며 감상하던 평양 관객들에 대한 인상이 깊었다. 결국 매년 열리는 북한의 국제 문화예술 행사 현장을 기록하자는 마음으로, 또 민간차원에서 나라도 교류를 해야겠다는 소명의식으로 방북했다.”

Q 방북했을 때의 경험을 소개해달라.

A “7차례의 방북은 큰 충격을 줬다. 세계 문화의 수도라 불리는 미국 뉴욕에서 유학을 하며 서구 중심의 엘리트 예술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북한의 행사는 특이했다. 일반 예술제와 달리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무용, 서커스 등 여러 형식의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고, 행사 개막식에는 전 세계 예술인들이 평양 시가행진을 했다. 마치 하나의 문화 올림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문화예술의 관점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쿠바, 캄보디아, 탄자니아 등 당시 대한민국과 교류가 극히 드물었던 국가의 예술인들이 그들의 전통의상과 민속음악을 선보였다. 그때 미국 유학에서 경험한 문화는 서구 중심의 하이엔드 문화 상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다. 나아가 각 국가와 민족들이 지켜온 문화들을 전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또 북한과 문화예술 교류를 이어가려는 세계인의 노력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영국에서 북한 음악인들에게 악기를 지원할뿐만 아니라 독일은 윤이상 선생을 매개로 남북 문화교류를 위한 다리 역할을 하려는 모습도 봤다. 해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2023년 11월 6일 임진각 부근 민통선 내 반환 미군기지인 경기도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탄악고 음악회>가 열렸다. DMZ 오픈 국제음악제 예술감독인 피아니스트 임미정, 첼리스트 임희영,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채가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트리오 2번을 연주했다. (사진제공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

Q 새해가 밝았다. 독자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는 무엇인가.

A “내 삶은 주로 추상적 가치에 몰두했기에, 사회적 통념과 정치 이념 등이 무엇인지 또 분단국가에서 나의 행동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잘 알지 못한채 활동을 해왔던 것 같다. 재단을 설립하고 운이 좋게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직접 실천해올 수 있었다. 그때 배운 것이 바로 ‘소통’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문화적인 언어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회과학의 언어로 소통하는 모습을 봤다. 본인이 오랫동안 종사하고 연구해온 분야에 맞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각자의 언어로 소통을 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생긴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기를 원한다. 새해에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민공호 의병장 전적비를 찾아가다

글·사진 박도 작가



현재 세계에 200여 국이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지닌 대단히 자랑스러운 나라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로 그동안 존속해 온 까닭은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의 투철한 애국심의 발로 때문이다. 나라가 이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이 땅의 백성들은 분연히 일어나 외적들을 물리치며 나라의 정통성을 대대손손 이어왔다.

나라가 이민족에게 국권을 빼앗기는 굴욕을 당했다가 마침내 해방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략국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선열과 그 유가족을 보살피는 일일 것이다.

요즘 필자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이 나라와 사회에 무엇을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반성으

로 부끄러워하다가 그래도 2020년부터 4년 동안 해마다 민화협-롯데장학재단이 진행한 독립유공자 장학사업에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일을 생각하면 조금은 뿌듯하다. 그동안 이 장학사업은 독립유공자 후손 150여 명에게 국내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가운데 최고액인 1인당 연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온바, 국내외 장학금 수혜자들은 면학에 큰 도움이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왔다. 특히 이 장학사업은 그동안 국가나 여러 사회단체에서 시행했던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보다 그 범위를 확대한 -독립유공자 후손 2대까지에서 수혜자 범위를 4대까지 넓힌 점, 독립유공자의 사상, 이념 등을 굳이 따지지 않은 점, 그리고 그동안 미처 돌보지 못한 해외동포 독립유공자 자녀들에게 가능한 혜택을 많이 주는 등- 방향으로 실시해 온 점이다.

마침 필자가 귀촌하여 살고 있는 강원도 횡성, 원주 지역의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기소개서를 읽다가 느껴온 마음에 구한말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로 위태할 때 일군과 100여 차례 교전하다가 순국하신 민공호 의병장 전적지 및 묘지, 그리고 기념 동상을 찾아 나섰다.

의병대장 민공호 전적비문

관동창의대장 민공호(閔肯鏞)는 1865년 서울에



1. 원주시 명륜동 치악체육관 옆에 세워진 '민공호 의병장 기념상'
2.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주천강변에 있는 '의병대장 민공호 전적비'

서 태어났다. 1897년 진위대에 입대하여 1900년에는 원주 진위대 고성분견대 정교(正校, 현 상사)로, 1901년에는 특무정교로 근무하였다. 1907년 8월,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될 때까지 원주 진위대에서 근무했다... 민공호 의병대는 강원도·충청도·경기도 일대에서 활약하던 이강년, 윤기영 등을 비롯한 여러 의병장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약 1천여 명을 지휘하며 횡성·충주·원주·여주 등지에서 100여 차례 일본군과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1907년 관동창의대장으로 2천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서울 탈환작전에 참가, 삼산리전투와 처현동전투, 죽전리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 1907년 겨울, 일본군은 의병대 토벌을 강화하였다. 민공호 의병대장은 의병대의 희생을 줄이기 위하여 50~60명씩 분산시켜 일본군에 대항하였다. 1908년 2월 27일 오전 11시, 강림 박달치 부근에서 일본군을 격퇴하고 그날 밤 월현리에서 숙영하였는데, 일본 군경은 이 정보를 탐지, 포위 공격하였다. 민공호 의병대는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곧 탄환이 떨어져 전세가 기울었다. 그러자 민공호 대장은 부하들을 보호하

고자 일본 군경에게 스스로 체포되어, 원주 일본군 수비대로 압송되는 도중, 강림5리 창말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날 밤 의병대 부하 60명이 민공호 대장을 구출하기 위해서 박달치 인근에 주둔한 일본군경을 습격한 뒤, “민공호 대장님은 어디 있는지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라” 크게 외쳤다. 그 소리를 듣고 민 대장이 포박된 채 탈출을 시도하자 일본군은 그 자리에서 민 의병장을 사살하였다. 1908년 2월 29일, 그의 나이 43세로 장렬히 순국했다.

[찬(撰) 박찬언 제자(題字) 이병렬]

민공호 의병장 전적비 참배를 마치자 녹음에 있던 주천강 언저리가 더없이 아름다웠다. 그러다 한 마을 주민이 다가왔다.

“어떻게 이 마을에 왔소?”, “민공호 의병장 전적비 참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은 민 의병대장 전적비를 찾아주시다니, 참 고마운 선생이요. 내 집에 가서 찬물이라도 들고 가시오.”, “감사합니다. 곧 버스가 올 시간입니다.”

필자가 다리를 건너 강 언덕으로 오르자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곧 도착했다. 원주 시내로 돌아온 뒤 봉산동에 소재한 민 의병장 묘지와 명륜동 치악체육관 옆에 있는 민 의병장 기념상을 둘러본 뒤 치악산 밑 집으로 돌아왔다. 🌈

박도는 1945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났다. 중동고, 이대부속고교 등에서 33년간 교사생활을 했다. 작품집 장편소설 『전쟁과 사랑』, 『용서』, 『허형식 장군』 등과 『항일유적답사기』, 『누가 이 나라를 지켰을까』, 『영웅 안중근』 등을 펴냈다. 이밖에도 『일제강점기』, 『개화기와 대한제국』, 『미군정 3년사』 등과 어린이 도서로 『대한민국의 시작은 임시정부입니다』, 『김구, 독립운동의 끝은 통일』 등의 저서가 있다.

대한민국,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아영 SBS 외교안보팀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사령부 등을 방문하고 “아무리 적이 기술적 우세를 자랑해도 우리 비행사들의 정치 사상적 우월성을 압도할 수 없다”며 공군의 정신 무장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항공절(11월 29일)을 맞아 지난 12월 30일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 등을 방문하고 영웅적 인민 공군의 전체 장병들을 축하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연합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초기 대표작 ‘꽃’의 일부이다. 문학적으로는 여러 해석이 있을 테지만, 여기서 논할 생각은 없다. 다만, 두 주체의 상호 관계에 있어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주로 인간 대 인간관계에서 적용되는 이야기지만 행위자의 수준을 높여 남과 북의 관계로 치환해보면 어떨까. 이름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 주지하듯, 북한이 최근 남측을 부르는 명칭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023년 7월 발표한 담화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언급했고, 통일부는

대남 메시지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족속”, “《대한민국》의 군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점화살팔호를 붙였는데, 특정한 의도 하에 사용한 표현임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그간 사용한 표현은 남측, 남조선이다.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웠다. 심지어 선전 매체의 대남 비방 영상에서 ‘남한’ 자막 가운데 ‘한’ 글자 하나만 골라 흐리게 처리한 경우가 있었을 정도다. 북한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남북관계를 우리와 마찬가지로 특수 관계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

면 남북은 나라 대 나라 관계가 아니다. 기본합의서는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9월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표현을 입에 올렸다.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핵협의그룹(NCG)을 비난하면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북 여자 축구 8강전 중계에서는 그나마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조차 등장하지 않았다. ‘괴뢰’라는 호칭만 명시됐을 뿐. 노동신문은 지금의 남측 정권을 ‘윤석열역적패당’, 혹은 ‘괴뢰패당’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뿐인가. 2018년 판문점에서 시작한 남북 간 훈풍은 또다시 칼바람으로 돌변했다. 9·19군사합의는 이미 휴짓조각이 되어 버렸고, 남북은 벌써 반년 넘게 최소한의 연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구구절절 설명했지만, 굳이 이런 점들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용어가 가진 부정적 의미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매체가 ‘대한민국’을 사용할 때 그 전후에 사용되는 표현들만 보더라도 곳곳에 날이 서 있으니 말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대한민국》것들은/ 《대한민국》의 정치군사깡패 무리들/ 《대한민국》종말의 《기폭제》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별개의 국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동안 양자 관계에서는 다른 논리가 통용됐다. 북한을 오가는 남측 인원은 입국과 출국이 아닌 입경과 출경을 했다. 민족 공동체라는 의식도 수면 위에서, 혹은 아래에서 작동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앞으로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물론, 남이든 북이든 어느 한쪽의 주도로 완전히

새로운 남북관계가 설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세월이 켜켜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무형의 유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이 전과 달리 양자 관계를 조금씩 달리 설명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국가관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국가 제일주의가 강조되고 있고 국가 상징물로서 인공기가 대대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김춘수는 명명 행위가 중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달라고 썼다. 남북, 그리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느 쪽이 더 실체적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일까. 이 글에서는 굳이 답을 내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북한’으로 부르고 있다. 대통령이나 혹은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호명한 사례는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호명하듯 우리 역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호명할 수 있을까. 한쪽은 상대를 대한민국이라고, 다른 한쪽은 상대를 북한이라고 부르는 언어의 이질적인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김아영은 2008년 SBS에 입사해 2018년부터 외교안보팀에서 통일부와 외교부를 취재하고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정치·통일 전공으로 석사를 마치고 현재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이게 된다고?”

전이슬 사단법인 하나누리 간사



2022년의 끝자락, 회의실에 북닥하게 모인 하나누리 구성원은 2023년을 맞이하며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것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때야말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외칠 때이다,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협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이는 초국경 네트워킹 파티라는 것을 해보자! 평화-통일을 새롭게 풀어보는 거야!”

혹자는 이 계획에 다양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모이는 것 같은 평화-통일 판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네트워킹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자국 이기주의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초국경을 얘기하는 것이 먹히겠는가. 예, 물론 지당한 질문입니다. 저에게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던 질문이었거든요.

이 질문을 해소하기도 전에 저는 3개의 큰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클라우드 펀딩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기, 텀블벅에서 클라우드 펀딩 성공시키기(feat. SNS 홍보), 풍성한 파티를

위한 기획·운영하기. 저 3개의 산을 넘으려면 완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등반하는 사람이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질문에 산길을 오르는 발목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과연 우리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꽤나 의외의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첫 번째 산부터 볼까요? 하나누리는 전략적으로 재정 확보와 새로운 관심자를 모집하기 위해 텀블벅이라는 플랫폼에서 초국경 네트워킹 파티의 후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텀블벅에서 펀딩을 진행했을 때 워낙 준비할 것이 많아 막막했던 차에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영리 단체의 클라우드 펀딩을 지원하는 ‘퍼어어어어언딩’ 사업의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부리나케 지원서를 냈긴 했으나 붙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면접도 보고 최종 합격 명단에도 하나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분명 초국경 협력이라는 주제가 생소하다, 네트워킹 파티라는 아이템이 텀블벅에서는 흔치 않다는 정서가 면접장을 채웠거든요. 후에 담당자분께 듣기



로는 면접 당시 일반인에게 생소한 주제일지라도 꼭 이 시기에 필요하다는 답변에 고개를 끄덕거리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산은 클라우드 펀딩을 성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클라우드 펀딩은 목표금액이 100% 이상 모이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었기에 고위험 투자를 대하는 것처럼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온지인을 동원하고 악성 댓글의 세례를 받을까 우려해 자제하고 있던 SNS 광고까지 돌려봤습니다. 펀딩 마감 기한은 다가오는데 도달되지 않는 목표금액에 ‘읽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펀딩이 성사되었습니다. 무려 165%라는 수치로 말이죠. 온라인 공간이 하나누리와 연결점이 없었지만 뜻을 함께하고 있던 분들과 연결되는 만남의 장으로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산, 실제 네트워킹 파티를 성황리에 여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휘청거리는 질문으로 만들어진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었습니다. 연말의 많고 많은 행사 중 오고 싶어하는 행사가 될 것인가, 행사가 참여자분들께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인가 등등 잠들지 않는 불안에

동동거리며 사전 준비를 해갔습니다. 참가자 명단은 흑여 파티장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뒤로하게 하는 부적이었구요. 그런데 막상 파티 시작 시각이 다가오니 명단에 하나, 둘 참가 표시가 그 어졌습니다.

박종수 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의 특강에서 가슴에 지퍼진 불은 전혀 모르는 사람과도 서슴없이 대화하며 명함을 나누는 열기로 이어졌고 공식행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도 담소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초국경 네트워킹 파티는 올해 하나누리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준비하다보니 사람들의 편견을 두려워하는 저 자신을 시험하는 장이었습니다. 평화-통일을 이루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진짜 이 가치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내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하지만 클라우드 펀딩과 네트워킹 파티를 준비하고 시행하며 만난 많은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가치를 어렵지만 가야 할 길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평화가 너무나도 쉽게 깨져버리는 상황에 위축되고 타인이 먼저 공격하기도 전 방어기제를 작동시켜 뽕뽕 뒤로 숨어버리고 싶었던 것이죠. 시험이 끝나고 나니 ‘자신감’이라는 근육이 큰 산들만큼 붙어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과 같은 시기, 우리는 온몸이 굳어질 정도로 움츠러들진 않았었나요? 사실 지금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가장 빨리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매화가 피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한껏 허세를 부리며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전전긍긍했던 한 실무자의 솔직한 속내를 고백하며,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께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

지역 언론사 기자의 역할

이은호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대구일보〉기자



2017년부터 필자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1020통일공감기자단으로 활동했다. 학창시절부터 기자라는 직업과 계속 연이 닿았다. 막연히 드라마에 나오는 기자들은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을 들쭉일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기자들을 바라볼 때 멋있고 의미 있는 일을 매 순간 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다. 뚜렷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어떤 권력에도 맞서 진실을 밝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민화협은 생소한 단체였다. 그 당시 영남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김주현 ‘통일대장’(현 〈경기신문〉기자)의 권유로 지원했고 덜컥 뽑혔다. 대구지역 안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활동했던 과거와 달리 서울에서의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활동은 내게 시야를 넓혀줬고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한을 깊이 공부하고 대북 통일 관련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당시 내겐 색다른 경험이었다.

2016~2018년 기자단 활동을 마치고 대학 졸업 후 사회적경제 내 로컬푸드 업계 종사자, 마을방송 편집자, 마을기자 등으로 일하며 주민들 사이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관저마을신문과 관저FM이라는 마을방송국에서 지역주민, 자영업자 등과 소통하며 주민자치라는 화두를 알게 됐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소소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흥미를 느꼈다.

2022년 2월부터 고향인 대구로 내려와 지역일간지 〈대구일보〉에서 기자로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학보사 경험, 통일공감기자단으로 기자라는 직업을 간접적으로 경험했고 결국 사회에 나와서도 기자가 됐다. 기자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냥 주어진 일,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발 벗고 나서는 사람이 기자라고 생각한다.

지역일간지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기사를 써야

하나’라는 고민을 뜻하는 은어로 ‘뗏거리’ 걱정이 있다고 말한다. 하루살이 인생처럼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 나서 일을 만든다.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자료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한다. 이후 기사를 발제하게 된다. 지역일간지 기자로 일하다 보니 나는 대구시민들과 독자들의 의견에 경청하고 있는지, 지자체의 홍보를 받아쓰기하는 것이 아닌지 항상 고민한다.

실제 독자들을 다수 만나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기보다 각 구청과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의 보도자료를 대부분 받아쓴다. 바쁘게 보도자료를 다 쓰면서 하루에 한 번 스스로 발제해 취재한 기사를 오후 4시 전까지 초본이라는 글로 완성시켜 제출해야 한다.

이런 기사를 쓰려면 보도자료, 구청 홈페이지 내 각 사업들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대책 마련 유무를 확인한다. 잘되고 있다면 성과와 비결 등을 기사계획으로 발제해 데스크에 알린다. 독자들의 고민, 애환을 담은 기사는 거의 쓰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일간지 기사는 독자들의 제보와 정보로 기사가 발굴되기보다 구청 내 사업 현황, 진척 상황, 사업의 중단 이유, 장밋빛 전망이 주를 이루는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종종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나타나는 갈등, 정치인들의 일탈과 재판 등의 기사가 신문 지면에 채워짐과 동시에 속속 온라인에 노출되는 형식이다.

뉴스가 공짜인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 언론사의 수익구조는 지자체의 구독료, 광고비, 기업·기관에서 나오는 홍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들의 이야기,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들이 어떤 생각

을 갖고 세상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관련된 기사는 찾기 쉽지 않다. 이처럼 지역 언론의 역할과 영향력이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음을 실감한다. 독자들이 지역 언론사에 관심 밖에 있는 가운데 지자체, 거대자본이 잠식하고 있고 그 달콤함에 더 익숙해져 있다. 특히 언론사들이 시청, 지역에 오래 자리 잡은 기업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수익의 상당수가 독자에게 나오는 언론사 운영은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설계돼 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인용하면 신문 권력은 독자로부터 나와야 하지만 현재 지역 언론사를 포함한 대형 언론사들의 신문 권력은 힘 있는 자본에서 나온다.

필자의 기사는 독자가 대다수 보지 않고 관공서나 기관, 동종업계 종사자 등에서 보는 공급처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 타인의 불행으로 먹고사는 직업, 어떤 문제가 없는지 사회 이면에 안 좋은 것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내 의도나 뜻과 달리 내 기사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날카로운 칼에 베인듯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나는 누구를 위해 기사를 쓰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쓰는지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볼 때다.

눈치 보지 않는 언론의 환경은 탄탄한 독자들의 후원과 지지에서 나온다. 끊임없이 기자들은 독자를 만나고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론직필이다.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바른 주장을 펴고 있는지 언론도 함께 돌아보길 바란다. 🌈

민화협 프랑스협의회, 2023 시민평화포럼 개최

문화와 예술로 한반도 평화 담론을 쫓다

편집부

프랑스 파리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한반도 평화 담론을 쫓는 장이 열렸다. 민화협 프랑스협의회(대표상임의장 전훈, 이하 프랑스협의회)는 현지 시간 11월 18일 오후 2시 파리정치대학에서 “ART&PEACE 평화를 통한 예술, 예술을 통한 평화 - 분단선을 넘는 예술: 남북 화해의 초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2023 시민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손명원 민화협 대표상임의장과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건국대학교 명예교수)이 현지 행사를 직접 찾아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한인 교민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현지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받았다.

행사는 전훈 프랑스협의회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했다. 한불 동시통역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이형렬 프랑스협의회 대변인과 윤현경 프랑스협의회 청년위원이 진행을 맡았다. 손명원 대표상임의장은 우리 역사 속 프랑스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1919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해에서 임시의정원을 열어 우리 국호인 ‘대한민국’을 선포하던 장소가 바로 상해 프랑스 조계지였다. 또 6·25전쟁 당시 프랑스도 참전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했다. 손 대

표상임의장은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달할뿐만 아니라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우리의 아픔과 화합의 의지를 알리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 1부에서는 소피 로슈포르 기요에(Sophie Rochefort-Guillouet) 루앙 대학교 교수가 “분단선 넘는 예술: 남북 화해의 초석이 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발표했다. 소피 교수는 남과 북에 직접 방문하여 느꼈던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그림, 판소리, 노래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비교하였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며 예술이 담고 있는 메시지들을 분석하였는데, 예술이라는 공통분모가 한반도 평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남북이 유네스코에 공동 등재한 씨름을 예로 들며,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 남과 북이 문화예술을 통해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남북 문화예술의 이해를 통한 남북 갈등 해소 등을 주제로 원탁토론이 열렸다. 김미희 프랑스협의회 청년위원의 진행 속에서 1부 발표를 한 소피 로슈포르 기요에 교수와 쿤 데 쿵스테르(Koen De Ceuster)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 교수, 발레리 줄레조(Valérie Gelézeau) 프랑스 한국연구협회 회장이 함께 했다. 토론자들은 북한에 직접 다녀온 경험을 소개하고 북한의 예술 사진과 영상들을 보여주며 청중의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청중 질의도 이어졌는데 ‘대개 예술가들은 사회 체제에 반하여 자신의 예술을 표현하는데, 북한은 체제에 동조하는 예술이 전부라고 봐도 무관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술 교류가 가능한 것인지’, ‘통일에 정치적 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등 날카로운 질문과 의견들이 있었다.

원탁토론 이후에는 이정희 재영탈북민연합회 회



1. 2023년 11월 18일 민화협 프랑스협의회가 주최한 2023 시민평화포럼이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에서 열렸다.
2. 11월 20일에는 손명원 대표상임의장이 프랑스협의회 임원 및 청년위원들을 대상으로 ‘청년대화’ 시간을 가졌다.

장의 간단한 발언도 있었다. 북한 당국의 문화예술을 이용한 체제선전을 언급하며, 억압받는 북한인권과 탈북민의 북송문제에 대해 세계인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어 사물놀이패 ‘월요일’의 <영남가락> 연주와 판소리 <진도아리랑> 공연을 끝으로 포럼이 마무리되었다.

11월 19일과 20일에는 ‘전쟁과 예술’을 주제로 한 역사탐방과 프랑스협의회 임원 간담회, 그리고 ‘청년대화: Achieving your dream in the globalera’가 열렸다. 특히 청년대화 행사에는 손명원 대표상임의장이 독립운동가 손정도와 해군제독 손원일에 대한 특강을 했는데, 프랑스협의회 청년위원들뿐만 아니라 한국학을 연구하는 현지인들도 참석하여 우리 역사와 남북통일에 대한 이목을 사로잡았다.

민화협 프랑스협의회는 2024년~2025년 활동프로젝트로 ‘예술과 축제의 만남’을 전개하고자 한다. 또 북한-프랑스 문화교류, 유럽 내 북한관련 NGO와 협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여러 층위의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 여성의 의식변화와 한반도 통일을 논하다

이은쁨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국립통일교육원 학교통일전문강사

민화협 여성위원회(위원장 서옥영)는 2023년 12월 6일 오후 2시 30분 바비엡 교육관에서 <2023 여성통일 강연>을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서옥영 여성위원장은 통일을 향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자유·평화 변영의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은 계층과 세대·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며, “민화협이 민간 차원에서 통일담론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화협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약 80년간 자유로이 왕래조차 못하는 이산가족이 처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현실은 압담하지만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분단된 민족을 통일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사명”이라며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독려했다.

첫 강연에는 “한반도 정세와 북한 변화 그리고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동용승 굿파머스 사무총장이 연사로 나섰다. 동용승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를 두고 더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 증

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인권이 정치적 논리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도로 꾸준히 의제를 이끌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여성의 의식 변화와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조현정 이음(EUM)연구소 대표가 연사로 나섰다. 조현정 대표는 함경북도 무산군 출신으로 2003년 8월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다. 조 대표는 북한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여성 지위의 변화를 분석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산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을 통해 사회주의와 가정에 헌신하는 여성상을 유지시켜 왔다. 하지만 2002년 7·1경제조치로 북한 사회 내 사장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본격화되었다. 결국 실질적 가장으로서 여성이 부각되고, 여성 정치지도자들의 세대 교체로 여맹의 역할도 강화가 되었다.

또한 북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에 맞춰 우리 사회 내에 “한반도 통일준비를 위한 여성 리더 양성이 필요”하며, 이에 발맞춰 인구학, 사회복지, 경제활동 측면에서 여성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중과의 질

의응답 시간에서 일부 청중은 북한 사회 내부로부터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남북교류를 통한 정보전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화협 여성위원회는 이번 통일 강연을 계기로 여성의 관점에서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북한연구 신진 연구자 네트워킹 간담회

김선규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2023년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 인사이터 홈 홀대에 서 ‘북한연구 신진 연구자 네트워킹 간담회’가 열렸다.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천착하는 신진 연구자들이 서로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학제 간 협력을 통해 북한 연구의 융합적 접근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롯데장학재단과 민화협이 2019년부터 협업했던 ‘북한 연구 지원사업(구 남북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심사위원을 맡은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홍순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박경석 산림경영전략연구소 수석전문위원과 신진연구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박인휘 교수는 지난 5년간 해당 학술연구 지원 사업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연구 학자들을 발굴하고, 기존 연구자들에게 연구 동력을 제공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영선 교수는 “그간 미진했던 북한의 생활문화, 인문·예술, 자연과학 등 다방면의 연구 주제로 확대할 수 있었던 기회였”고, “향후 이 사업이 통일 미래세대 새싹을 키워낸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그간의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고 서로 간 활동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제5회 사업에서 박사급 1등을 한 최설 연구자

는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2년 만에 이룬 큰 성과”라며, “통일 학자로서의 삶에 사명감과 역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2021년 제3회 사업에 참여한 김은진 연구자는 “멘토-멘티 프로그램 덕분에 연구 방향에 있어 해매고 어려울 때 선배 연구자들의 적절한 지도와 조언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연구자 간 네트워킹을 강조했다. 과거 북한 연구를 막 시작하던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연구자 간 활동 성과들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들 때마다 서로 응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롯데장학재단과 민화협의 북한연구 지원 사업이 2023년으로 마무리된다. 한반도 정세가 엄혹한 시기에 100여 명의 학자들에게 북한·통일 연구에 조금이나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였다. 민화협은 앞으로도 북한·통일 신진연구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다.



2023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글로벌 시대의 민족화합과 남북관계

김태우 민화협 정책홍보팀 부장

2023년 12월 20일 오후 2시 <2023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이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글로벌 시대의 민족화합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국제질서의 격변 속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지정학적 대립 구도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를 살피고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과 우리 외교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마련됐다. 또 민화협

창립 25주년을 맞아 ‘민족화합’이라는 새로운 비전에 맞춰, 국제사회 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접근과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그린데탕트와 ESG에 대한 구체적인 통일준비 방안 등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개회식에서 손명원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먼저 남북 대화조차 없었던 2023년을 두고 안타까워했다. 손 대표상임의장은 “우리 정부는 강력한 국방 안보와 동맹국과의 군사적 공조 속에서, 북한 인

권의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노력했지만, 한편으로는 대화의 문을 두드려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도 문제지만, “당국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민간 채널을 활용할 수 있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2024년 새해에 “한반도 통일과 공동번영을 위한 귀중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세션에서는 “심화되는 지정학적 충돌과 우리의 외교”를 주제로 정구연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정 교수는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현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 대화 및 협상 추동을 추구했던 지난 정부의 접근법은 설득적이지 않았다고 본다. 이에 역제와 단념에 방점을 둔 한국의 대북정책은 한미 간 의견 차가 작은 상황이다. 특히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담은 미중 네트워크 경쟁의 상황에 지정학적 균형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중국의 서태평양 역내 현상변경 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안보적 균형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강압, 공급망 재편 등 경제적 재균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규칙기반 질서를 옹호하는 민주주의 국가 간 협의체라는 점에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재구성되는 경제·안보 아키텍처 속에 역내 안정을 위한 역할 분담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이 디리스킹을 언급한 점을 두고는 선별적 디커플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대중정책의 과감한 변화보다는 동맹국과 국내 유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크다. 결과적으로, 강경한 대중국 정책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미국 바이든 대

통령이 미중 관계 ‘해빙’을 언급한 것은 미중 화해가 아닌 현재 작동하지 않는 양국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한다는데 방점이 있다.

이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이 발표에 나섰다. 이규창 실장은 북한인권실태 개선을 위해서는 자유권·사회권·제3세대 인권 등 다양한 인권의 범주,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인권의 포괄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유엔의 3대 기둥으로 간주되고 있는 인권·평화·발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틀로 분석했다.

첫째, 북한인권실태가 열악한 데에는 재해재난, 기후변화·기후위기,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북한 당국에 1차적·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둘째, 북한의 변화는 책임규명과 인권제재 등 소위 압박을 통한 정책 추진과 함께 북한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정보 및 문화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실상을 깨닫게 해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는 인도지원·개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 활동도 전개했다. 북한은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인권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향후 우리 정부의 역할도 제시했는데, 남북 간의 인도협력,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권에 관계없이 강조되어 왔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재해재난, 기후변화·기후위기, 감염병 공동대응을 매개로 하는 남북인도협력기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골든타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속 그린데탕트와 ESG”를 주제로 최현아 한스자이텔재단 한국사무소 수석연구원이 발표에 나섰다. 최현아 수석연구원은 먼저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표한 자발적국가보고서(VNR)을 분석했다. 북한은 “1990년부터 2020년 사이 국토 전역에서 홍수,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했다”며,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것은 가뭄과 홍수”이고 “가장 큰 재산상의 피해는 홍수와 태풍”이라고 밝혔다. 북한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 속에서 과거와 달리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과 동시에 그간 무차별적으로 개간을 해오며 산림자원을 파괴시켜 온 것에 대한 위기의식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2020년 9월 북한 황해북도 은파군이 수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가정 주택을 건설하는 등 긴정은이 직접 현지 시찰을 하며 완전복구를 챙기는 모습이 그렇다. 이어 최 수석연구원은 기후 위기 속 북한의 기후환경 관련 활동들과 우리의 그린데탕트

와 연계 가능성을 찾았다. 북한은 대북 제재,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부족 등을 겪는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의 환경관련 활동에 참여 중이다. 2017년 세계자연보전연맹과 2018년 랍사르 협약,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가입했다. 또 2017년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에 1건의 환경전과정평가 기술이전을 요청했고, 2019년 녹색기후기금 국가지정기구 및 연락담당자를 지정하며, 2021년 UN SDGs 이행 점검을 위한 자발적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활동으로, 탄소 저장고라 불리는 습지 보전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8년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랍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은 서해와 황해의 보전과 문덕습지를 비롯한 습지 보전과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들을 발표했다. 또한 2021년 4월 수정된 북한의 <환경보호법>을 보면 ‘자연생태계의 균형파괴행위금지’ 조항에 “습지를 비롯한 동식물의 서식지를 원상대로 보존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에 최 수석연구원은 크게 두 가지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 SDGs와 ESG를 연계한 협력이 필요하다. 공간적 확장, 연대,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3가지 바탕에서의 기후·환경·생태·개발협력을 위해 단계적 협력 추진을 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후위기 대응 습지생

태계 보전과 환황해 협력안을 제시했다. 북한이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로 우리의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관련 협력이 고려될 수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신상진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우리 통일외교 방향을 두고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북한의 군사위협 아래 미국의 압도적 국력과 폐쇄적이고 허악한 중국의 시대였던 냉전시기에는 강력한 한미동맹이 경제와 안보를 지켜주는 확실하고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근대화시기 특정외세를 불러들여 외부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 전략이 모두 실패한 경험이 있다. 미중 경쟁은 미소 냉전과는 상이하다. 그럼으로 과도한 가치외교를 지양하고 자강을 바탕으로 실리 추구 외교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2024년 국회의원선거 국면에서 대북정책, 대외정책이 국내정치 의 희생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남북 자유왕래’와 ‘거주이전의 자유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와 북한인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비전향장기수, 북송 희망 북한이탈주민, 재북억류국민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분단 고통 해소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하다. 비전향장기수, 북송 희망 북한이탈주민 송환과 가족재결합을 위해서 북한 당국이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남북 상호 자유왕래와 거주이전의 자유가 실현될 경우 남북관계와 북한인권 문제는 획기적 변화와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이어 인권정책의 보편성, 일관성, 비정치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인권, 인도주의 사안은 남북관계와 정치적 상황,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 추진되어야 실질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의 ‘그린데탕트’에 대해 소개했다. 그린데탕트란 ‘국가 간 긴장 완화가 환경을 매개로 이루는 것으로, 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쌓게 되는 국가 간의 신뢰가 정치군사적 긴장을 누그러뜨리게 되어 결과적으로 평화 무드를 가져오도록 유도하는 접근이다. 그린 데탕트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린’으로 상징되는 환경문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협력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다는 ‘환경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110대 국정과제와 국정목표를 발표하면서 국정과제 94번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그리고 국정과제 95번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를 제안했다. 국정과제인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는 북한의 식수 및 위생 문제와 자연재해 대응과 같은 환경분야의 이슈와 연결된다. 북한은 물과 관련된 질병 발생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홍수와 가뭄에 대한 피해는 거의 매년 국제사회에 보고되고 있다. 물과 위생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인도적 문제로 분류되므로, 이러한 환경문제 대응은 우리정부의 국정과제 실현과 연결되며, 남북 ‘그린데탕트’의 구현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화협 정책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바탕으로 통일외교, 북한인권, 그린데탕트 등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제언의 자리를 2024년에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민화협 유튜브 채널에서 전체 확인 가능하다. 🌐

2023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에서는 국제정치, 북한인권, 기후변화를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주체계이론으로 본 북한 이주민의 서구 국가 이주 요인: 영국과 캐나다 사례 분석

노현우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
김아영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수로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2023년 11월 8일(현지시간) 뉴몰든 한인타운을 방문. 난민으로 와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연합

민화협은 2019년부터 롯데장학재단과 공동으로 북한연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족화해〉는 본 사업에 선정된 우수 논문을 한 편씩 요약하여 소개한다.

영국, 캐나다, 미국, 독일 등 서구 국가에 북한 이주민이 거주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대부분 태국이나 몽골, 라오스 등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거나 중국에서 미등록 신분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이주민의 거주 패턴에 변화가 생긴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다.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은 서구 국가에 난민 신청자(asylum-seekers)로 임시 거주하거나 난민(refugees) 지위를 획득하여 살아가는 북한 이주민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남한에 정착했다 서구 국가로 넘어갔으며, 남한 여권으로 해당 국가까지 이동한 뒤 남한 여권을 숨기고 북한에서 바로 입국한 것처럼 꾸민 채 난민 심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300~400명에 머물던 난민 및 난민 신청자 수는 2007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2,000명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다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2016년을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들이 서구 국가에 '난민 신청'을 하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 왜 하필 이러한 시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2010년대를 거치면서 줄어들었을까?

카슬의 이주체계 이론에 따른 이주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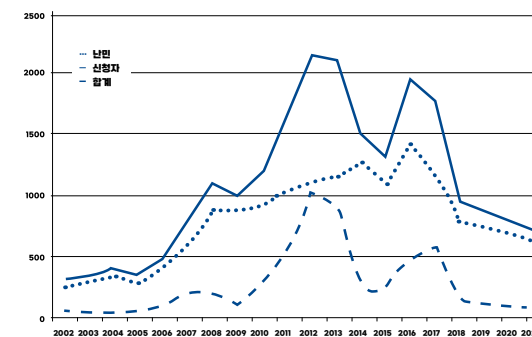
국제이주 현상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카슬(Castle)의 이주체계 이론에 따라 초국가주의 요인, 정치적 구조 요인, 사회동학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각 요인들이 북한 이주민의 서구 국가 이주에 어떠한 방식으로 촉진 또는 장애의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초국가주의 요인은 북한 이주민의 서구 국가 이주가 가능하게 한 거시적 배경을 형성한다. 초국가 단체의 활동 결과로, 국제사회에 '북한 난민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국제규범이 등장한 것과 관련있다. 정치적 구조 요인은 수용국의 제도, 송출국의 내부 환경 등과 연관된다.

북한 난민 수용이라는 규범의 확산으로 서구 국가 내 북한 이주민의 난민 신청 심사가 비교적 쉬웠던 점, 서구 국가의 난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 등은 북한 이주민의 이주를 촉진했다. 이후 서구 국가에서 이민통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 난민심사도 어려워지면서 이주는 억제되었다. 송출국인 한국 내 차별적 담론 형성, 지원 정책의 결함 등은 이주 촉진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회적 동학 요인은 가족과 공동체, 이주산업, 이주 행위자 요인과 관련된 것이다.

북한 이주민의 서구 국가 이주에 사적 네트워크와 이주 브로커가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주행위자의 동기와 관련해선 차별 경험과 자

〈그림〉 2002-2021년 북한 난민 및 난민 신청자 추이



출처: UNHCR, "Refugee Data Finder," <<https://www.unhcr.org/refugee-statistics/download/?url=W0KY9q>> (검색일: 2022.5.2.) 바탕으로 저자 작성.

녀가 있는 경우엔 자녀 교육에 대한 동기가 서구 국가로의 이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국제 규범으로서 북한 난민의 등장 및 확산

규범의 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규범 주창자들(norm entrepreneurs)인데, 이들은 규범을 명명하고 해석하고 극적으로 만들어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

북한 난민 관련 규범의 등장에 있어서도 규범 주창자의 역할이 중요했으며, 가장 활발했던 단체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이었다. 이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탈북한 중국 내 탈북자 인권 향상을 위해 중국에서 겪은 비참한 생활상을 알리고자 국내외 기

사회견, 미국 상하원 청문회, 인권이나 난민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다. 결국 중국 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길 주저하던 유엔난민기구가 1999년 중국 내 탈북자들 일부가 난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인권 관련 초국가단체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국제사회에 ‘북한난민 수용’이라는 규범이 등장하게 되었고, 미국에선 실제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이 같은 규범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 영국을 비롯한 캐나다 등 서구 국가에서 북한 난민을 인정하는 사례가 확산되었다.

정치적 구조 요인과 관련해서는 2000년대 초반

이전부터 북한 망명자들을 수용한 독일과 쿼터제를 적용하는 미국의 사례는 적합하지 않아 가장 많은 북한 난민을 받아들인 영국과 캐나다 사례를 살펴보았다. 수용국인 영국과 캐나다의 정책 상황은 규범 확산의 영향을 받았다.

북한 난민 관련 수용국과 송출국의 정치적 구조

영국은 북한 난민 수용에 대한 규범이 등장한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캐나다는 2007년 이후 북한 이주민 인권에 대한 동정 여론이 정치권 안에서 공유되었고, 북한 이주민의 난민 신청 심사가 비교적 쉽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또 영국과 캐나다의 난민뿐만 아니라 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한국의 많은 북한 이주민의 서구 이주를 촉진하였다. 그러나 영국과 캐나다 정부는 북한의 난민 신청자를 한국 국적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화하게 되고 난민 심사를 강화하는데 이러한 흐름은 영국과 캐나다의 난민통제정책이 강화된 것과 흐름을 같이 한다.

송출국인 한국 관련 요인으로서는 ‘차별’이 서구 국가로의 이주를 촉진한 주요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파악되었지만, 최근 실태조사 등에 나타난 차별 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감소는 이주 행위의 결정적 요인이 교육문제 등의 개인적 동기로 변화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 이주민의 사적 네트워크와 브로커

영국과 캐나다 사례 모두 이주 결정에 있어 사적 네트워크와 이주브로커가 영향을 주었고 이주과

정에 있어서도 브로커의 도움이 난민 신청 및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주 행위자의 개인적 동기와 관련해선 자녀가 있는 경우엔 자녀 교육을 위해 이주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실태조사에선 학령기 자녀들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주 결정을 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북한 이주민의 서구 국가 이주 전망

북한 이주민이 서구 국가로 이주하는 현상에는 이주체제이론이 말하는 대로 세 가지 층위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서구 국가의 난민 불인정 사례가 급증하면서 난민신청을 통한 이주민의 숫자가 급감했고 북한이주민의 서구 국가 이주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줄어든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종식과 함께 국경통제 완화와 인적교류 활성화로 북한 이주민의 서구 국가로의 이주 시도도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규범이 강화되거나 변화하게 되는 경우, 수용국의 정책이 이에 동조하여 북한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북한 이주민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거나 이와 관련한 연쇄이주(chain migration), 이주산업이 발전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와 같은 현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난민 신청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취업으로 서구 국가로 이민가는 사례들도 생기고 있어 서구 국가로의 이주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현황 파악을 통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

〈표〉북한 이주민의 서구 국가로의 이주 촉진 및 억제 요인

분류		이주 촉진 요인	이주 억제 요인
초국가주의 요인	초국가 공동체	• 초국가공동체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	
	국제규범	• UN, EU 북한인권 결의안 • 2004년 미국 북한인권법 제정	
정치적 구조 요인	수용국의 구조	• 북한 이주민의 난민지위 인정 • 각국의 난민 경제 지원 정책 (영국, 캐나다 등)	• 북한 이주민 난민 지위 불인정 • 난민 지위 부여하지만 정부의 경제 지원 없음 (미국) • 난민 쿼터제 (미국)
	송출국 (한국)의 구조	• 초기 정착에 집중된 지원 •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차별적 담론 •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한 절차의 복잡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각종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4항에 근거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보호 및 정착지원 중지 혹은 종료
사회적 동학 요인	가족과 공동체	• 가족이나 지인의 제3국 정착	
	이주 산업	• 북한 이주민 난민 신청 관련 단체 • 브로커의 활동	• 알선 브로커의 불법 행위
	이주 행위자 동기	•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 • 사회적 차별의 경험	



영화 속 북한 이야기 30

‘악마’로 다시 태어난 구미호 이야기 만화영화 <악마를 이긴 역쇠>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악마를 이긴 역쇠>는 북한 텔레비전 방송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3D 만화영화이다. 옛날 이야기 ‘구미호’를 원형으로 한 인형극을 ‘조선4·26 만화영화촬영소’에서 2020년 제작한 37분 길이의 최신 만화영화이다. 원작에 대해 북한 언론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이 들려준 동화라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는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목란’에서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하였다고 보도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악마를 이긴 역쇠>는 장수 인기 작품으로, 100부까지 제작한 ‘소년장수’의 뒤를 잇는 작품으로, 제작부터 주목받았던 작품이다. 2019년 5월부터

제작에 들어가 1년 3개월의 기간을 거쳐 2020년 8월에 완성하였다.

구미호를 아십니까

‘구미호’는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이다. 1,500년 전에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를 보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이야기로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의 신화와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여우는 피가 많고 의심이 많다고 알려진 동물로 신화나 전설에 자주 등장한다. 구미호는 변신할 수 있으며, 사람을 홀리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교환



할 사람이나 매혹적인 여성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전설에 의하면 여우는 500년을 수행할 때마다 꼬리가 둘로 갈라지는데, 아홉 개가 되면 불사(不死)의 존재가 된다고 한다.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 천 년 묵은 여우는神通한 능력이 있는 존재로 등장하여, 인간을 해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한다. 한국의 전설에서 구미호는 인간이 되기 위해 살아 있는 사람의 간을 100개 먹으려 하는 무서운 캐릭터로 등장하기도 하고, 남자와 결혼해서 100일 동안 정체를 숨기고 지내다가 결국 정체를 들키고 인간이 되지 못하는 슬픈 캐릭터로 등장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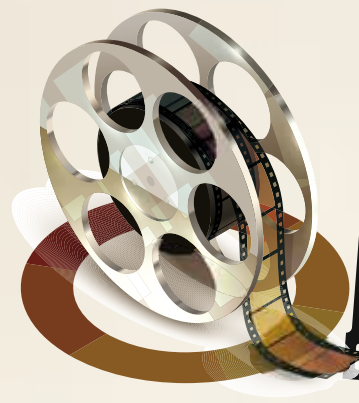
구미호는 아홉 개의 꼬리로 요술을 부릴 수 있는데, 특히 변신술에 능하여 사람을 잘 속인다. 다만 변신할 때 꼬리 부분이 남아 있어서, 결정적인 장면에서 들키곤 한다. 구미호는 엄청난 힘을 가졌고, 특히 예쁜 여성으로 변신도 잘한다는 특징 때문에 매력적인 캐릭터로 ‘전설의 고향’ 같은 낱말 특집의 단골 소재였고, 이승기와 신민아가 주연을 맡았던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이동욱과 김범이

주연한 <구미호전>과 같은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였다.

북한 만화영화에서 ‘여우’는 간교하고, 교활한 동물로 나온다. 북한 만화영화에 나오는 동물의 이미지는 정해져 있다. 개, 토끼, 개미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의 주인공인 반면 쥐, 여우, 승냥이, 박쥐는 단 한 번도 좋은 동물로 나온 적이 없다. 여우나 승냥이는 제국주의자나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등장한다. <악마를 이긴 역쇠>에서는 악마가 되어 마을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구미호를 주인공 역쇠가 용감하게 맞서 싸워 이긴다는 줄거리이다.

악마가 된 구미호

<악마를 이긴 역쇠>는 먼 옛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던 양지마을에 악마가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한다. 사람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어야만 기쁨을 느끼는 악마가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악마에 맞서 싸워도 보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을은 잿더미가 되곤 하였다. 역쇠의 아버지도



악마에 맞서다가 죽었다.

집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악마의 요구대로 젊은 이들을 바치게 되었다. 그때부터 마을 이름도 ‘그늘마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지만 용감한 역쇠는 굳센 의지로 힘을 키우고 있었다. 역쇠에게는 아름다운 부인과 딸 꽃순이가 있었다. 역쇠는 하루도 쉬지 않고, 산에 올라 단련을 계속하였다. 부인이 “악마놈이 알게 되면 더 큰 화가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요. 그만둘 수 없나요” 하며 만류도 하였다. 하지만 역쇠는 뜻을 꺾지 않았다.

악마는 역쇠의 가족이 행복하게 웃는 것을 보고는 참을 수가 없었다. 악마는 “꽃순이 어미를 바쳐라. 내 말을 거역하면 마을을 통째로 불사를 테다.”라고 협박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이 역쇠가 악마를 없애겠다고 나서서, 악마의 화를 돈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은 꽃순이 엄마에게 “이제라도 마을을 떠나는 게 어떻겠느냐”면서 도망가라고 하였다. 하지만 꽃순이 엄마는 자기가 도망가면 마을 사람들이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스스로 악마가 있는 곳으로 나섰다. 마을 사람들은 꽃순이 엄마가 불쌍하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역쇠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꽃순이 엄마 이야기를 듣고는 꽃순이 엄마가 갔다는 악마가 사는 할미산으로 갔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살리고 죽으려는 꽃순이 엄마를 구하게 된다.

역쇠는 꽃순이 엄마를 구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면서, “집을 먹으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 악마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그리고 악마의 약점이 꼬리라는 것을 알았다. 역쇠는 마을 사람들과 힘을 모아 맞서기로 하였다. 한편 악마는 이제껏 고분고분하던 마을 사람들이 맞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났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혼내 주겠다고 결심하였다.

위장술로 역쇠를 위험에 빠트린 악마

꽃순이 엄마를 구해 온 이후 마을 사람들은 악마와 맞서기 위해서 무술 훈련도 열심히 하면서 대비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을은 조용하였다. 그렇게 사람들의 경계심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였다. 얼마 후였다. 안개마을에서 왔다는 한 노파가 꽃순이 엄마를 찾아왔다. 노파는 꽃순이 엄마를 찾아서, “내가 앞산 벼랑 밑을 지나가다 어떤 젊은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젊은이는 ‘꽃순아, 꽃순아’ 하면서, 꽃순이를 찾았다”고 하였다. 꽃순이 엄마는 꽃순이를 이웃 노파에게 맡기고 급하게 노파를 따라나섰다. 하지만 그곳에 역쇠는 없었다. 노파는 가짜였다. 악마가 변신술로 속인 것이었다. 그렇게 꽃순이 엄마는 악마에게 사로잡혔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역쇠는 꽃순이 엄마가 악마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역쇠는 악마가 사는 할미산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악마가 역쇠를 기다리고 있었다. 역쇠가 오는 길을 갈라 빠트리려 하였고, 바위를 굴려 죽이려고 하였다. 역쇠는 간신히 벼랑에서 살아났다. 이번에는 최면가루를 날려 잠들게 하고는 불을 질러 죽이려고 하였다.

하지만 역쇠는 정신을 차리고, 활로 공격하였다. 역쇠의 화살 공격에 놀란 악마는 구미호가 되어 도망치다가 꼬리 하나를 다쳤다. 역쇠는 악마의 힘이 꼬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는 한 번에 아홉 개의 꼬리를 없애기로 하였다. 나무를 깎아서 화살 아홉 개를 한 번에 쏠 수 있게 하였다.

그렇게 구미호가 된 악마를 쫓던 역쇠는 할미산 길목에서 외딴집을 발견하였다. 집에는 젊은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다. 젊은 여인은 “남편이 악마와 싸우다가 죽었고, 마을 사람들도 악마에 죽었다.”고 하면서 “자기도 마을을 떠날 것”이라고 하였다. 젊은 여인은 먹을 것을 가지고 오겠다면서 방을 나갔다. 그런데 여인의 치마 밑으로 꼬리가 보였다.

젊은 여인은 바로 구미호였다. 역쇠는 자는 척하면서, 구미호를 잡았다. 그러자 구미호는 아홉 마리의 불여우로 변신해서 역쇠에게 덤벼들었다. 위

기의 순간 역쇠는 하늘로 날아올라 아홉 개의 화살을 날렸다. 구미호는 화살을 맞고, 칼을 맞아 눈을 잃고는 동굴로 도망하였다.

동굴 속에는 꽃순이 엄마가 묶여 있었다. 악마는 꽃순이 엄마를 인질로 잡아 역쇠를 겁박하였다. 꽃순이 엄마는 주저하지 말고 악마를 죽이라고 하였다. 역쇠는 피를 냈다. “이 화살은 짐승만 죽이고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구미호는 진짜로 믿고 도망치다 역쇠에게 죽었다. 구미호가 죽자 구미호의 근거지였던 할미산이 무너졌다. 역쇠는 꽃순이 엄마를 데리고 동굴 밖으로 나왔다. 마을 어르신은 “우리는 지금까지 악마에게 짓눌려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 임자처럼 힘을 키워 싸울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마을 사람들은 “제힘을 굳게 믿고 용감하게 싸우면, 그 어떤 악마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역쇠의 말을 따라 힘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

전영선은 한양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북한사화문화 및 문화예술에 대한 다수의 저서를 펴낸 국내 최고의 북한문화예술 전문가이다.



문학 속 통일미래 41

노동자성을 잃은 고위직 일꾼의 과오 각성 - 송재환의 「그 시작의 의미」론

오태호 경희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



1. 고위직 공무원의 관료주의 비판

송재환의 단편소설 「그 시작의 의미」(「조선문학」, 2023. 4)는 2023년 현재 북한 사회의 내면 풍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다. 50대 초반 여성으로서 ‘도의 경제지도기관’의 처장으로 사업하다가 1개월 전에 엄중한 과오를 범한 뒤 노동 현장에 내려와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일선 노동 현장으로부터 떨어진 관료주의적 고위직 일꾼이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직장장의 일상’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문제-해결’ 구도의 전형적 구조를 보여준다.

고위직 공무원(=일꾼)과 일선 현장 노동자의 관계는 ‘노동계급의 천국’이어야 할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상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 속 관계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주의이든 사회주의이든 위계적 공동체 사회에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상급자가 하급자를 닦달하는 관료주의적 속성이 상명하복이나 탁상공론식의 행정으로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북한 사회에서도 관료주의는 일종의 ‘경계 대상 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본주의적 착취와 모순이 없는 사회에서 관료주의적 문제가 갈등 요소가 되어 노동하는 인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초심을 회복하려는 ‘과오 일꾼’의 성찰

1) 자격정지 중의 고향행

작품은 “첫눈에 신중한 기쁨이 느껴지는 50대 초엽의 녀인이 열차 차창으로 흘러가는 북방의 험하

고 날카로운 산발과 계곡의 그늘진 골짜기들을 깊은 상념에 잠겨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면서 주인공 유정심의 고향행을 그린다. “신중한 기쁨”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주인공이 경솔한 언행의 소유자가 아니라 내면의 깊이를 체득한 노련한 인물임을 보여준다. 도의 경제지도기관의 처장으로 사업하던 정심은 지금까지 가정을 망각한 채 업무에만 파묻혀 왔다고 자부하면서 자신이 받은 ‘처벌 수위’에 대해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이 당의 신임과 믿음을 순간적으로 저버린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애써 자중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북방의 고향 장흥에 살고 있는 외삼촌이 80세 생일에 보고 싶다며 연락을 해서 북행열차에 오른 정심은 조용히 다녀오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30년 만의 고향행이기에 장흥고등중학교 동창생이자 관수 송사업소 관료작업반에서 함께 노동을 시작한 석명옥과 그의 남편 리하철의 얼굴이 떠오른다. 역전 광장에서 나오던 정심은 명옥을 만나 버스를 타고 함께 고향으로 가게 되면서, ‘땀땀한 정과 애뜻한 향기’를 느끼게 된다. 버스에서 애 어린 노동자 청년이 명옥이 건네준 ‘강냉이 팥빙이’를 맛나게 먹으며 나누는 대화에서 정심은 주변사람들을 대하는 명옥의 살가운 모습을 보면서 ‘숨김없는 진정과 가식 없는 생활’이 보여주는 ‘훈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2) 노동자에 대한 믿음을 지닌 존재들

80세 생일 준비로 붐비는 정심의 외삼촌 집에 ‘걱정 영감’이 방문하자 정심은 기억의 불꽃이 튀면서, 노동 안전에 대해 시시콜콜 잔소리가 많았던 노동안전원 서아바이가 ‘걱정 반장’이었음을 떠올리게 된다. 서아바이는 그때 정심이 눈썰미가 빠

르고 손끝이 여물어 늘 작업반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고 기억한다. 정심은 ‘소박한 사람들과 건강한 일터’를 감감히 잊고 살아온 사실에 대해 면구스럽고 가슴이 쓰러온다. 반면에 하철 직장장이 고난의 행군 시기 때부터 오늘날까지 열심히 일했다고 외삼촌이 덧붙이자 정심은 점점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들이 사랑에 넘쳐 칭찬하는 직장장이 바로 지난날에는 자신이 눈 아래로 굽어본 존재였기 때문이다.

정심은 이튿날 정다운 직장이었던 장흥제2중계장을 찾는데, 현대적 온실과 전문 목장 같은 축사, 희한한 양어장을 보면서 어디에서 이런 창조와 놀라운 전변이 생겼는지 놀라워한다. 그럴수록 눈시울이 축축해지면서 노동계급의 굳센 믿음으로 자신의 입당 보증을 서준 세포비서 아바이의 순박한 얼굴이 떠오르자 죄스럽게 느껴진다. 이제라도 자신의 때늦은 진심을 세포비서 아바이에게 바치고 싶지만, 그는 이미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대신 정심은 그의 아들인 심봉섭의 집을 찾아가는데, 그 집에서 처녀 시절의 자신과 명옥이 세포비서 아바이 등과 함께 수송관을 배경으로 찍혀 있는 사진을 발견한다.

3) 직무 정지 고백과 하철의 성실성

봉섭의 아내가 시아버지 생존 시에 처장 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늘상 했다고 전하자, 정심은 다시 한 번 죄스러움을 느낀다. 그리하여 세 사람에게 자신이 처장 직무에서 자격정지 처벌을 받고 자체 검토 중에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이후 하철이 발을 다친 봉섭 대신 관로 순회를 가겠다고 하자, 정심도 하철과 함께 나서며 세포비서 동지에게 때늦은 사죄로나마 ‘책벌 순회’를 하겠다고 말한다. 하철은

관로를 따라 걸으며 정심에게 아랫사람들의 사정을 말로만 듣고 아는 것과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전한다.

관로 순회를 하던 도중 하철이 관에 실금이 가면서 터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듣게 되고, 이후 하철과 정심, 봉섭 등이 함께 힘을 합쳐 관이 터진 부분에 쇠조임띠를 조이자 정광물이 점차 수그러들게 된다. 하철은 관로작업반 사람들이 도착하자 자신이 걸발림식으로 지령실과 뽕프장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관로감시 사업을 미루어 왔다고 반성한다. 그러자 봉섭은 직장이 조금 더 허리를 편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고 대답한다. 자신의 과오를 먼저 자성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정심은 자책을 하게 된다. 정심의 경우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출세욕만을 채우려 들었기 때문이다.

4) 국가적 손실을 입힌 정심의 독단

3개월 전 정심은 도에서 중요한 건설 대상에 요구되는 자재 생산을 빨리 추진하여 보장하라는 과업을 받고 강철공장에 내려간다. 정심은 당시 부국장 후임으로 논의되던 시기여서 제기된 과업을 무조건 수행하여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만약에 대보수 문제로 대상 건설용 자재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혁명성이 없고 투쟁열이 부족한 일꾼’으로 눈 밖에 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정심은 많은 고려와 타산 끝에 대보수를 먼저 수행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먼저 생산을 진행하도록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때 자기의 주관과 독단을 혁명적 언사로 정당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외면하여 정심이 자기의 하찮은 명예와 출세욕 때문에 노

동계급의 이익을 희생시킨 셈이다. 어쨌든 당시에는 긴급 과제를 제때에 맞춰 수행한 정심이 상급 단위로부터 ‘이악한 일꾼’으로 평가되지만, 강철공장을 떠난 후에 전기로가 지나친 과부하를 받은 후과로 생산이 멈춰진다. 결국 오랜 시간의 대보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정심의 독단 때문에 국가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노동자들은 갑절로 모진 고생을 하게 된 것이다.

5) 노동자의 편에서 그들의 시각과 관점으로

정심은 오랜 시간 일꾼으로 재직하면서 아랫사람들과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는 것을 응당한 것으로 여긴다. 직위가 오를수록 노동자들로부터 멀어지고 상급자들의 눈치만 보아온 것이다. ‘구멍막이식 실무’에 빠진 채 밤낮으로 아랫사람들을 들볶으면서 큰소리를 쳤던 정심은 하철과 노동자들을 바라보며 오늘에야 비로소 자신의 과오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풀아터졌는지를 통절히 느끼게 된다.

명옥이 고향을 떠나는 정심에게 노동자들이 따르는 일꾼이 되기 전에는 고향땅을 다시 밟을 생각을 말라고 웃으며 말하자 서아바이도 명심하라고 덧붙인다. 두 사람의 말과 웃음에 정심도 구김살 없는 어린애 같은 밝은 웃음을 짓는 것으로 그려진다. 정심은 티없이 맑고 인정스러우며 눈물겹게 진실한 이들을 외면하고 살아온 자기 과오를 떠올리며, 노동자로서의 ‘첫 시작의 의미’를 의미심장하게 확인하게 된다.

정심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깊이 머리 숙여 절을 하고 싶다고 느끼면서 “한생 영원히, 변심없이…” ‘노동자와 함께하는 일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설은 마무리된다.

3. 개성적 인물의 형상화

송재환의 「그 시작의 의미」는 ‘개구리가 된 고위관료’가 ‘올챙이적이었던 노동자 시절’을 망각하면서 자신의 출세욕에 눈이 멀어 정책적 판단 실수를 경험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도의 경제지도기관’의 처장이었다가 부국장 승진을 위해 생산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국가적 손실을 입히고 노동자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이야기는 실화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각색된 실화일 수도 있지만, 고위직 관료가 잘못된 판단 속에 노동계급의 이익을 망각하게 되면 ‘직무 정지’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제도적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사회주의적 관료의 이상적 모습을 짐작하게 한다.

북한에서도 노동자와의 친화력이 뛰어난 중간 관리자가 있고, 노동자성을 망각한 고위직 일꾼이 있으며, 그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사회적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고상한 인물’의 긍정적인 형상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출세욕이나 명예욕을 앞세우며 개인적 실수나 정책적 오류를 경험하는 고위직 인사를 형상화함으로써 2020년대 북한 문학이 도식화된 인물 유형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판단된다. 무오류적 지도자만이 아니라 솔한 실수와 오류를 저지르는 문제적 개인을 형상화함으로써 사회주의 현실을 주제로 다룬 작품에서 리얼리즘의 본령인 개성적 인물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오태호는 2001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문학평론에 당선되었다. 평론집으로 『오래된 서사』, 『여백의 시학』, 『환상통을 읽다』, 『허공의 지도』, 『공명하는 마음들』 등이 있으며, 연구서로 『문학으로 읽는 북한』, 『한반도 평화문학을 상상하다-21세기 분학문학의 현장』 등이 있다.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표로 보는 남과 북 50

한 해의 우표를 담아 발간하는 ‘연간 우표책’

이상현 민화협 체육교류위원 · 대한하키협회 회장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전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된다. 우표의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한 해 동안 어떤 우표들이 나왔는지 한데 모아 보는 맛이 있기 때문이다. 남과 북의 우표 발행 당국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연초가 되면 전년도 우표들을 담은 우표책을 발행한다. 이것을 연간 우표책이라 부른다. 한 해 동안 발행된 모든 우표들이 그림과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한 권으로 독립적인 컬렉션이 되고 책처럼 생겼기 때문에 넘겨보는 재미도 있어 수집가들의 관심을 끈다. 또 우정당국입장에서는 부가가치를 올려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 현재 상황에 최근 본인 2022년도 연간 우표책을 살펴보자.

우선 남측은 ‘2022 대한민국 우표 컬렉션’이라 인쇄되어 있다. 구성을 살펴보면, 발행일시, 디자인, 인쇄 방식, 디자이너와 같은 상세 명세와 함께 발행 취지, 도안 소재에 대한 설명문이 각종 그림과 사진을 활용해 보기 좋게 인쇄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 우표와 함께 사용된 기념 우편 날짜 도장의 이미지도 찾을 수 있다. 한글과 함께 영문으로도 설명이 나와있다. 2023년에 발행된 이 우표책은 정가 85,000원에 우체국에서 판매되었다.

북측은 ‘2022 조선우표년감’이라고 쓰여있다.

우선 첫 페이지를 열면 한 해 동안 발행되었던 우표들의 목록을 정리한 페이지가 나온다. 우표번호와 제목, 발행일자와 종수, 액면 가격이 정리되어 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우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이한 점은 우표 발행 순으로 편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역대 지도자와 관련된 우표들을 먼저 배치하는 것이다. 남측의 우표책과 다르게 우표 설명에 도움이 되는 그림들은 따로 인쇄되어 있지 않고, 우표에 대한 설명과 명세만 나와 있다. 남측의 우표책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표 발행량을 명시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글, 영어뿐만 아니라 한자로도 설명문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맨 뒷페이지는 남측의 기념도장과 같은 개념의 ‘첫날 도장’들의 모습을 모아 놓았다. 북측의 연간 우표책이 중요한 이유는 연중 발행한 우표 중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긴 우표는 연간 우표책에 누락시켜 발행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북측의 정치적 상황도 들여다볼 수 있다.

남과 북 모두 곧 2023년 연간 우표책을 발행할 것이다. 어떤 디자인으로 발행될지 궁금한데, 마치 유명 그룹 가수의 새로운 앨범 발매를 기다리는 심정이다. 동시에 2024년 새롭게 발행될 우표들의 모습도 상상하게 된다. 🌈

South Korea



1



2



3

1. 2022년 연간우표책 표지
2. 태조 이성계 어진 우표와 설명
3. 차용무 우표와 설명
4. 우표책에 담겨있는 '다시 찾은 소중한 문화유산' 우표 2022.2.14.



4

North Korea



1



2



3



4

1. 2022 조선우표년감 표지
2. 2022 우표발행 목록
3. 우표와 설명문
4. 첫날도장 인영
5. 우표책에 담겨있는 '폭포'우표 2022.8.20.



5

이상현은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전국총학생회연합인 학생연대21 의장,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대한하키협회 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민화협 체육교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평양의 조선우표사를 방문하기도 했던 저자는 우표수집가로서 우표를 통해 남과 북의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남북 우표 교류에 대한 공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철원 평화기행을 마치며

글·사진 이영동 DMZ평화네트워크 상임이사



경원선 신탄리역에서 고대산을 뒤로 하고 3번 국도를 따라 북동쪽으로 3km 정도 가면 강원도 철원에 접어든다. 이어서 3km 정도 더 가면 경원선 마지막 역이자 DMZ평화열차 종착역인 백마고지역이 나온다. 일제강점기 경원선을 건설할 때 백마고지역은 없었으나 2012년에 신탄리역~백마고지역을 신설했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백마고지역~월정리역 구간을 먼저 복원하고 북한과 협의로 DMZ구간을 복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16년 6월 노반공사 공정률 3%가 진행되던 중 남북관계 경색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되어 언제

재개될지 기약이 없다.

백마고지역 앞에 보이는 마을이 재건촌 대마리이고 정상에 태극기와 유엔기가 희미하게 보이는 낮은 산이 백마고지이다. 백마고지는 DMZ 안에 있어 갈 수 없고 백마고지전적지에 방문하면 조망할 수 있다. 백마고지역과 대마리, 백마고지전적지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지금은 언제든지 막힘없이 이 지역에 갈 수 있지만, 과거에는 민통선에 가로막혀 두세 번의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갈 수 있었다. 백마고지 전투는 1952년 10월 6일~15일까지 395m 고지에서 한국군이 미군의 후방 포격을 지원받아 중

국군과 싸워 승리한 전투이다. 국군 제9사단은 중국군 3개 사단을 맞서 10일 동안 12차례의 전투를 했다. 7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혈전 끝에 백마고지를 확보했다. 이 전투에서 중국군은 1만여 명이 전사와 부상 또는 포로가 되었고, 국군 제9사단은 1천여 명이 전사하는 등 많은 사상자를 냈다. 10일간 총 28만 발의 포탄이 떨어져 산 높이가 5m나 낮아졌다고 하며, 종군기자에 의해 백마고지라고 명명되었다. 필자는 10년 전 중국 여행사 대표들과 함께 5일 동안 DMZ를 동서로 탐방한 적이 있다. 위령비 앞에서 지난 시기 갈등을 잊고 한중이 화해 협력하는 의미에서 그때 전사한 피아간의 군인들을 위해 추모의 묵념을 제의했고, 이들은 흔쾌히 받아들여 함께 묵념을 했다. 전적지 바로 앞에 ‘통일이 평야야 철원야’ 구호가 있는 독방길은 1979년에 만들어진 대전차 장벽 ‘79장벽’이며, 오른쪽의 세 봉우리는 백마고지 전투 시 예비연대가 대기하는 3자매봉이다. 오른쪽 북쪽 지평선은 북한의 평강고원이다.

전쟁의 상흔을 뒤로 하고

전적지 아래에 27명 학생이 다니는 묘장초등학교가 있는 대마리 마을이 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묘장면도 폭격으로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전쟁 이후 이 마을 일대는 사람 대신 수많은 지뢰가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인 1960~70년대에 철원에 14개의 민통선 마을이 생겼다. 주목적이 식량증산이었다. 대마리는 1968년 재향군인 150명과 가족들이 입주하여 만든 마을이



1. 백마고지전적지에서 바라본 백마고지, 가운데 삼각형의 산이 궁예가 진산으로 삼은 고암산이다.
2. 철원을 찾아온 겨울철새 천연기념물 두루미 (출처: 철원군 홈페이지)

다. 이들은 군부대가 지뢰를 제거하고 제공하는 5천 평의 땅이 턱없이 부족해 스스로 지뢰를 제거하면서 버려진 농지를 개간했다. 이 과정에 불발탄과 지뢰사고로 입주가구의 15%인 23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들이 개척한 척박한 땅이 지금은 전국 유명 철원오대쌀 생산지로 변모했다. 그러자 원래 땅주인들이 땅문서를 들고 나타나 재판 끝에 입주민들은 패소하여, 땅을 되사거나 임차해야만 하는 이중의 고통에 시달렸다. 대마리 마을을 방문하면 마을 한가운데에 커다란 개척비가 있다. 개척비에는 이들의 입주 과정이 담겨있다. 또한 최근에는 역사문화관 ‘세모발자국’을 개관했다. 세모발자국은 대마리 입주민들의 개척 역사를 기록·보존하고 세간에 알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10년 전 KBS에서 방영한 DMZ 4부작 3편을 유튜브에서 감상하면 이들의 처절한 개척사를 볼 수 있다. 이 지역을 방문하는 탐방객 대부분은 대마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필자는 대마리의 개척비와 세모전시관을 꼭 방문해 보시기를 탐방객에게 추천한다.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9·19군사합의’에 따



3. 한동안 북강원도 도청소재지였던 현재 철원군에 위치한 노동당사
4. 5만평의 철원역터. 전쟁으로 모두 파괴되고 신호등만 당시 영화를 대변하고 있다.

라 남북은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 내에서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을 했다. 도로 연결 후 남북한군이 군사분계선에서 서로 악수하는 장면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톱뉴스를 장식했다. ‘화살머리고지’는 군사 분야 화해협력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남한만 단독으로 유해발굴을 시작했고, 2019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유해 420여 구와 10만 점의 유물을 발굴했다. 이후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한 해만 보면 전국적으로 남한군은 162구, 북한군과 중국군은 50구의 유해가 발굴되었다. 이 중 70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신 분의 유해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아직 유족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남북은 강대강 대치에 따라 9·19군사합의는 사실상 폐기되어 버려 DMZ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관계가 되살아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지역 현황을 둘러보고 싶으면 DMZ평화의길(<https://www.durunubi.kr>)에서 철원코스를 선택하면 백마고지조망대, 공작새농성

조망대, 비상주GP도 함께 볼 수 있다. 하루에 20명까지 선착순으로 탐방가능하다.

다시 한번 발해를 꿈꾸며

노동당사의 외관을 본떠 만든 대마리 두루미평화관 앞에는 상허 이태준의 문학비가 있다. 상허 이태준은 묘장면 산명리 출신으로 1921년 휘문고보에 입학한 그는 동맹휴업을 주동하여 제적되었다. 이후 일본 상지대에 유학을 간 그는 문단에 데뷔하여 〈오몽녀〉 등 여러 작품을 남긴다. 별명이 조선의 모파상인 그는 1933년 이효석 등과 9인회 멤버로 활동한다. 당시 혹독한 탄압 시기에 그의 작품은 〈사냥〉에서 보듯이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비유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했으며, 해방 후에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등 좌익계열의 문학단체에서 활동했다. 1933년부터 1946년까지 서울 성북동에서 집필했던 이태준은 홀연 월북한다. 한국전쟁 때 남한에 내려왔던 그는 55년 숙청되어 자강도 협동농장 등지에서 일했다고 전해진다. 월북작가라는 프

레이미 씌워진 그의 작품은 올림픽이 열리던 해인 1988년 여러 작가의 작품과 함께 해금되었다. 월북 전까지 성북동에 살았던 고택은 ‘수연산방’이라는 이름의 전통 찻집으로 변해 그의 외손녀가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는 고택 주변을 ‘이태준 길’로 조성하기도 했다.

대마리 3번 국도에서 민통선으로 좀 더 들어가면 철원역 터가 나온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5만 평의 크기에 역무원이 80명에 달했다고 알려져 있고 경원선 철원역에서 금강산 가는 전기철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웅장한 모습은 간데없고 신호등 하나만 남아 옛 영화를 대변하고 있다. 5년 동안 북한 땅이었던 시절에 건축한 노동당사를 제외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철원을 근처의 모든 건물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러시아풍의 무철근 공법으로 건축된 당사는 당시로서는 현대식 건물이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뮤직비디오 ‘발해를 꿈꾸며’를 노동당사 주변에서 촬영한 이후 노동당사가 사람들에게 알려져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노동당사와 주변이 근대문화거리로 조성되어 볼거리가 더 많아졌다.

진너편 소이산에 올라가면 광활한 철원평야와 고암산 자락에 궁예가 태봉국을 세웠던 도성 터, 평강고원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9월 추수철에 소이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철원평야의 황금벌판을 바라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9·19군사합의 이후 DMZ에서 궁예도성 터에 대한 공동발굴 계획을 남북이 합의했으나 남북관계 악화로 이마저도 무산되어 버렸다. 소이산 정상에는 한동안 한미 군인이 주둔했으나 지금은 철수하여 생태탐방로 길로 일반인에게 개방되고 있고 최근에 설치된 모노레일을 타고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이 낮은 산 정상에도 일제는

쇠말뚝을 여러 개 박아서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려고 했었다.

DMZ평화관광은 2땅굴-평화전망대-월정리역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철원군 홈페이지 DMZ두루미평화타운에서 접수하면 하루 4회 관광이 가능하다. 월정리역에서 밖으로 나오는 길에 겨울에도 얼지 않는 샘통과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얼음창고, 농산물검사소의 잔해를 볼 수 있다. 민통선 군사보호시설로 묶이면서 사람의 발길이 줄어들자, 뜻밖의 선물인 천연기념물 두루미와 쇠기러기가 해마다 철원지역 겨울 손님으로 찾아온다. 두루미는 전 세계에 3천여 마리가 있으며 11월에 천여 마리의 두루미와 8천 마리의 재두루미가 우리나라를 찾는다. 철원지역에 많이 찾아오는 이유는 민통선 지역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적고 철새들의 먹이가 많기 때문이다. 아이스크림 고지에서 DMZ두루미탐조관광을 하루에 2번 할 수 있으며 DMZ두루미평화타운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근 철원군은 새롭게 조성된 ‘주상절리길’, ‘고석정 꽃밭’으로 고석정 일대가 교통체증이 생길 정도로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100만 관광객을 돌파하였다. 겨울철에는 한탄강에 부교를 설치하여 물윗길트레킹이 가능하며 아주 가까이에서 여러 형태의 주상절리를 감상할 수 있다. 🌈



이영동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통일교육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민화협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DMZ평화네트워크 상임이사 등을 맡고 있다. 오랫동안 DMZ 접경지역을 답사하며 평화 해설사로 활약해온 평화통일 운동가이다.

1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19회 전국통일스피치대회 개최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가 창립 34주년을 맞이하여 2023년 10월 28일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에서 제19회 전국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2명(초등부 4명, 중등부 6명, 대학부 5명, 일반부 7명)이 본선에 올라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스피치를 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상(대통령 윤석열)은 일반부 임승환(한국복지사이버대학) 씨가 받았다. 이번 대회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가 주최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부, 교육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대학교, 통일교육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총연합회, 국기원 등이 후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http://ccuwk.or.kr/>)

2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 전쟁과 평화 학술심포지엄> 개최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사장 한정숙)가 2023년 11월 3일 강원대학교 미래도서관 정강홀에서 '전쟁의 허스토리과 경계의 여성들'을 주제로 <여성, 전쟁과 평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과 강원대학교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1세션은 '여성의 전쟁 경험과 전후 체제'를 주제로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송연

옥 도쿄 문화센터 아리랑 관장, 한정숙 서울대학교 교수의 발표가 진행됐다. 2세션은 '경계선에 선 여성들'이라는 주제로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영선 성공회대학교 교수, 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안태운 서울여담재 관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전협정 70년을 맞은 한반도의 평화 부재 상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폭력 갈등 등의 상황을 돌아보고 전쟁 위기 속에서 외면받아 온 여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역사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문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02-929-4846)

3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제50차 세계한인상공인지도자대회 개최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이사장 김덕룡)는 2023년 11월 24일 인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인천호텔 이스트2층 A홀에서 제50차 세계한인상공인지도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덕룡 이사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김진용 인천경제자

유구역청장, 고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부의장 등과 세계 한인상공인 250여 명이 참가해 한민족공동체의 역할 신장과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덕룡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홍익인간의 가치를 바탕으로 남북한과 재외동포 등 지구촌 8500만 세계한민족공동체의 협력과 지혜가 필요한 때"라며 세계한상지도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주문했다. 이번 대회는 외교부, 재외동포청이 후원했고,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컬비코리아가 협찬했다. (문의: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02-587-4401)

4

광복회, 롯데장학재단과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MOU 협약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과 독립유공자 후손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MOU 협약식을 가졌다. 2023년 12월 4일 광복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이종찬 회장은 "광복회의 존재 이유는 독립유공자 선열처럼 국가에 기여할 미래세대를 키워내는 일"이라면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각지대의 후손 리더들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

사장은 "광복회의 도움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년도 장학사업 공고는 2월 중순 광복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https://www.kla815.or.kr/>)

5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제25회 한겨레통일문화상에 '日 사이타마 합창단', 제2회 청년평화상에 '왓캐스트 사부작' 수상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사장 문정인)이 주최하는 제 25회 한겨레통일문화상에 일본의 노래운동 시민단체인 '사이타마 합창단'과 제2회 청년평화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해온 팟캐스트 '사이좋게 북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수다(사부작)'이 선정됐다. 사이타마 합창단은 1998년부터 한국 시민사회와 음악 교류를 시작하면서 한일 과거사 청산, 한국의 민주화운동, 한반도 평화와 통일 등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해왔다. 팟캐스트 사부작은 2018년부터 200여 차례 남한의 진행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게스트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통점을 찾아가는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시상식은 12월 8일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열렸다. (홈페이지: <https://koreahana.net/>)

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24년 북한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공동대표 박준영, 우희종, 최완규)은 '2024년 북한 신년메시지 분석과 정세전망' 토론회를 2024년 1월 2일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교육선도사업단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북한 전원회의의 메시지를 분석하여 2024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 나아가 남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의 사회로, 정치·군사·남북관계(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경제·사회(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대외환경(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남북교류협력(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4부문에서의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홈페이지: <https://ksm.or.kr/>)

7

민족문제연구소, 김지섭 투탄 의거 100주년 기념 특강 개최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는 2024년 1월 11일 오후 5시 식민지역사박물관 5층 강의실에서 '김지섭 투탄 의거 100주년 기념 특강'을 개최한다. "제국의 심장을 겨누다"를 주제로 <살신성인의 길을 간 의열투쟁가, 김지섭>의 저자 김용달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강연에 나선다. 의열단원이었던 김지섭 의사는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으로 일본 내 한인들이 학살당한 소식을 듣고, 1924년 1월 5일

일본 도쿄 왕궁 입구에 수류탄 3발을 던지며 대한 독립의 의지와 열망을 표출했다. 하지만 3발 모두 불발되었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1928년 2월 옥중 순국했다. 2021년 9월 문화재청은 옥중에서 쓴 김지섭 의사의 편지 4통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이번 특강은 '김원봉과 함께'에서 주최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한다. (홈페이지: <https://www.minj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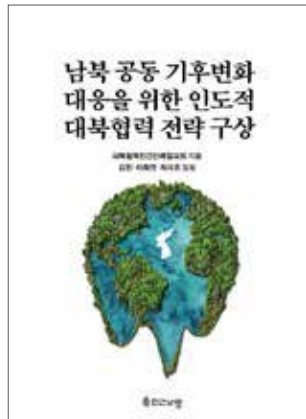
8

희망래일, 2024년 겨울 바이칼 탐방 참가자 모집



희망래일(상임공동대표 박준영, 우희종, 최완규)이 2018년 이후 5년 만에 겨울 바이칼 기행을 진행한다. 2024년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7박 8일간 몽골 울란바토르, 시베리아의 파리라고 불리는 이르쿠츠크, 신비로운 바이칼 호수를 탐방할 예정이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며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 칭기스칸 광장, 몽골 역사박물관 등 시베리아의 문화를 체험하고 우리의 역사 현장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번 탐방에는 가수 손병휘도 동행해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새해에는 남북이 평화로운 시대

를 맞이해 한반도가 대륙으로 향하는 꿈과 희망을 갖길 기원해본다. 참가비는 307만 원으로 24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문의: 희망래일 02-323-5778)



남북 공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도적 대북협력 전략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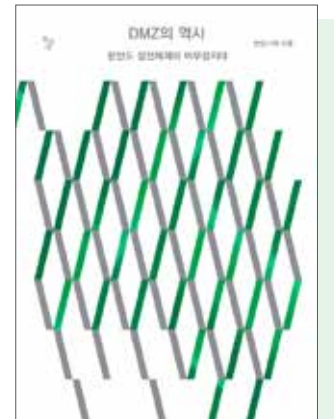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외 | 인간사랑 | 2023. 12

국내 대북협력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북민협에서는 남북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을 위한 향후 실제 대북사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상해보고자 어린이재단과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의 후원으로 〈북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 모델 구상〉연구과제를 추진하였다. 이 책은 해당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북한의 기후변화 현황, 북한의 기후변화 정책, 국제협력 가능성, 북한 관련 진행사업 현황과 기후변화 사업 전망 등 4개 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장에서는 국제사회 및 북한의 기후변화 현황을, 3장에서는 북한의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을 완화와 적응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4장에서는 북한의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5장에서는 북한 관련 국내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추진 사업 현황과 향후 기후변화와 접목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사업 전망에 대해 부문별로 평가 및 전망해보았다.

DMZ의 역사 한반도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

한모니까 | 돌베개 | 2023. 11

2023년 11월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북한은 이에 대응해, 9·19 군사 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는 재무장화에 나섰다. 정전협정 70년을 맞은 2023년이 저물어갈 무렵, 이처럼 「9·19 군사합의」 파기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DMZ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조명하는 책이 출간 되었다. 한국전쟁과 남북 접경지역의 역사를 중심으로 분단과 냉전, 통일과 평화의 문제에 천착해온 역사학자 한모니까(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성립과 DMZ의 탄생 순간에서부터 1960년대 DMZ 무장화의 과정과 냉전 경관의 형성, DMZ에서의 화해와 체제 경쟁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북한 여자로 살기 여성과 북한 민주화 씨앗

감희 | 한울 | 2023. 11

탈북민 출신 연구자이자 『북한 사람 이해하기』(2021)의 저자는 이 책에서, 낮에는 전체주의 공포 체제에 굴복해 순응하다가 밤에는 온갖 불법 행위를 벌이는 북한 사람들의 이중적인 생활양식을 '일상의 저항'으로 파악한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시장 경제의 주체로 부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이러한 이중성을 대변한다고 본다. 매일매일 일상의 저항을 주도하는 세력으로서 북한 여성에 주목하는 한편, 북한 여성이 겪는 구조적인 차별과 폭력의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를 밝혀내고 있다. 탈북민으로서 북한 체제의 트라우마에 대해 연구해 온 저자는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여성의 생애 주기별 발달 단계를 심층적으로 그려내고, 북한에서 움트기 시작한 작은 저항의 불씨가 민주화의 결정적 순간으로 발화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자극한다.

남북 경제협력의 새 비전과 과제 : 남한식 해게모니 모색

임종운 | 좋은땅 | 2023. 11

저자는 현재 중단된 남북 경험 사태와 재조성되는 남북 군사적 긴장 국면을 남북 관계의 위기와 파국의 시기가 아니라 중장기적 시각에서 향후 재개될 남북 경험과 남북 경제 통합의 도정에 겪어내야 할 남북 관계 조정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저자가 그리는 향후 남북 관계와 경제 협력의 기본 방향은 남북 당사자 접근이며, 이미 선진국이 된 남한의 해게모니 발휘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남북 관계를 다루어 왔던 많은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세계체제론과 Hegemony 이론 조합을 통해 한반도 경제 사회 구조와 발전을 논하고 있다는 점, 남·북, 해외 동포 3자 동맹을 통한 상호 동반성장 전략을 도모한다는 점, 더 나아가 이 과정이 한반도에 21세기 새로운 경제(성정)체제로 나아가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독자엽서〉로 정답과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25호 정답은 '25주년'입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주소를 명확히 보내주세요. 선정의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민족화해 네트워크

민화협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회원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 축하하는 행사를 보면서 뿌듯하고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특히 “민족 화해를 넘어 민족화합”이라는 슬로건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민화협 창립 25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 **최지하** 경기 하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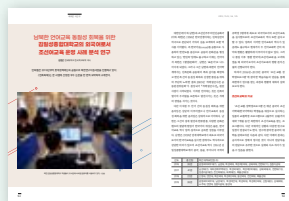
권두 인터뷰(김천식 통일연구원장)

김천식 통일연구원장님의 비전을 잘 읽었습니다. “우리의 DNA는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이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통일부맨으로서의 오랜 통일 현장에서의 경험, 수많은 남북회담 현장에서의 경험들이 앞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귀중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안영선** 서울 동작구



권두인터뷰(이인배 국립통일교육원장)

이인배 국립통일교육원장님의 〈한반도의 운명과 두 개의 특이점〉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산업·경제체제의 변화인 ‘4차 산업혁명’과 ‘한반도의 통일’은 필연적이고, 사회적으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 **이승엽** 서울 관악구



새로운 시선⑩

분단 70년 이제 남북 간의 언어도 많이 이질화되어 통일 후 소통과 화합에 적잖은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만시지탄인 감이 있지만, 더 늦기 전에 북한의 언어를 분석하고 이질화 현상이 빚어진 요인을 찾아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전경욱** 서울 노원구



민족화해 네트워크

민화협 창립 25주년 기념 후원의 날 소식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읽었습니다. 민화협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회원단체들과 한반도 평화, 남북통일 그리고 민족화해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모습을 꿈꾸며 2024년에는 남북 간에 꽃피는 봄날이 오길 바랍니다. - **홍소진** 서울 강서구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PC와 스마트폰에서

〈민족화해〉를
만나보세요



〈민족화해〉는 민화협의 생생한 소식과
남북 이슈, 퀴즈 그리고 독자 참여까지 알찬 정보가 가득합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QR코드만 스캔하면 민화협 소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화협 블로그



민화협 페이스북



민화협 홈페이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2024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변함없이 민화협을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화협은 새해에도 민족화합과 한반도 통일, 평화정착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평화와 화해가 함께 하는 2024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